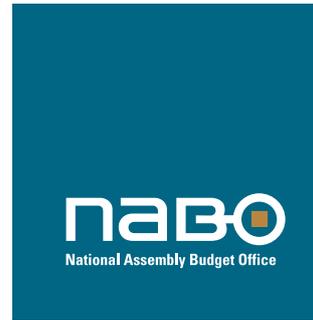


사업평가현안분석 제42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

2012. 9

하현선

사업평가현안분석 제42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

총괄 | 천우정 사업평가국장 직무대리

기획·조정 | 천우정 행정사업평가과장

작성 | 하현선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지원 | 황수지 행정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사업평가현안분석」은 국회가 관심 있게 다룰 재정 현안이나 정책 이슈에 대해 객관성 있는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 02) 788-4750 | hhs81@assembly.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

하현선

2012. 9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간사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사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무대를 국내 노동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실업률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양성을 위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집행과정 및 성과평가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에 수록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해외취업 분야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해외취업사업 추진 법체계 및 해외취업 직종편중 문제 등 새로운 내용을 발굴하여 개선·보완하고, 최신자료로 교체 하였으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계획-집행-성과관리 단계별로 분류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정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계획 대비 성과미달성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과 실적 과다산정, 사업 사전·사후관리 미흡, 취업취약계층 지원 미흡, 단순노무직 취업 과다, 유사·중복 사업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기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질적 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운영을 내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현안분석보고서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절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2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요 약

I. 서 론

-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무대를 국내 노동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7개 중앙부처에서는 매해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한 해 평균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사전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일부 중산층 대학생의 어학연수로 전락하였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글로벌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향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기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질적 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운영을 내실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예산현황 및 사업실적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II.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현황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i)해외취업, ii)해외인턴, iii)해외봉사 사업으로 분류됨.
 - 2008년 확정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i)해외취업 5만명, ii)해외인턴 3만명, iii)해외봉사 2만명, 총 10만명을 양성하도록 목표를 수립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예산은 4,868억 3,900만원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983억 700만원, 2010년 1,207억 5,300만원, 2011년 1,355억 6,600만원이다. 2012년 예산액은 작년 대비 2.5% 감소한 1,322억 1,300만원임.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처별 예산총액을 살펴보면, ① 외교통상부가 2,751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② 고용노동부 1,018억 700만원, ③ 교육과학기술부 878억 5,300만원, ④ 행정안전부 117억 7,300만원, ⑤ 농촌진흥청 49억 8,700만원, ⑥ 지식경제부 30억원, ⑦ 국토해양부 12억원, ⑧ 산림청 10억 2,000만원 순임.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분야별 예산총액을 살펴보면, 해외봉사분야 사업 예산이 총 2,811억 9,5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 해외인턴분야 사업 1,038억 3,700만원, 해외취업분야 사업 1,018억 700만원 순임.

III.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사업계획 단계

- 당초 계획 대비 수정·변경 사항 과다
 - 10만명 양성사업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첫 해부터 하향 조정되어 추진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당초 양성 계획인원은 104,957명이었으나 64,841

명으로 40,116명(38.2%) 감소됨.

-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한 경기악화로 자국민 고용문제 해결 우선추진, 해외취업 구인처 확보 어려움, 예산확보의 어려움, 환율 상승 등의 여건 악화를 사업계획 변경 사유로 제시함.
- 물론 해외여건 및 추진상황 등이 반영되어 사업추진계획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2008년 국무총리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정부지원협의회의 연차별 목표인원 계획을 살펴보면 해외 수요 등 구체적인 목표인원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현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연구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2. 사업집행 단계

□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초과 발생

-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해외취업사업인 해외취업연수사업과 해외취업알선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위탁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국회에서 의결된 확정금액보다 2010년 137억 9,300만원, 2011년 29억 2,000만원, 총 167억 1,300만원의 예산을 초과집행 함.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잔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추계 과정 없이 2010년, 2011년 2년간 1,549명의 인원을 초과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결과 예산을 초과집행 하였다고 설명함.
 - 가령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수기관과 약정체결시 회계프로그램에 약정체결액 전액에 대해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월별 연수비 청구시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원인행위 후 지출함으로 인해 예산집행 잔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초과재원 167억 1,300만원 중 26억 7,400만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13억 5,100만원은 자체사업예산 절감분에서 충당, 고용노동부에서는 45억 5,500만원은 사회적기업보조금에서 전용하여 충당하도록 추가 출연 조치함.
 - 부족재원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한 데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상반기에 다른 사업예산 전용이 곤란하고, 당장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퇴직급여충당적립금을 사업비에 충당하였다고 함.
- 그러나 퇴직급여충당적립금은 민간자금으로서 국가예산으로 수행되어야 할 국가사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민간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부족분은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하였어야 함.
- 또한 민간자금이 국가재정으로 충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자금을 국고로 납입하고 이후 배정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처리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직원퇴직급여충당금과 사회적기업보조금에서 전용하여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81억 3,300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연말에 사업집행 잔액을 바탕으로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사무/서비스직으로 해외취업 편중

- 정부에서 해외취업 실적인원이라고 산정한 인원의 직종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직종에 비해 사무/서비스업의 비중이 매년 높게 나타남.
- 사무/서비스업 해외취업자의 세부직종을 살펴보면, 호텔 및 숙박시설 서비스 등 종사자, 단순 사무종사자(사무원),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판매(영업)관련 종사자, 이·미용 및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음료서비스종사원(커피숍) 등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이러한 단순 노무직의 경우 국가적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점을 볼 때,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외취업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취업연수 중도하차에 따른 예산 낭비 및 사업성과 미흡

- 해외취업연수 사업은 연수과정 중 중도하차 하는 인원이 매년 약 1,000명 가량 발생하여 해외취업이라는 사업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연수대상 모집 선발비, 진행비 등 각종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취업연수 수료실적을 살펴보면, 중도탈락비율은 2008년 23.1%, 2009년 27.7%, 2010년 26.3%, 2011년 15.7%로 평균 23.1%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중도탈락인원은 총 5,070명 발생함.
- 특히 이 사업이 해외취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취업률은 중요한 사업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연수과정 중 취업실적이 전무한 기관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에는 206개 과정 중 41개 과정이 취업률 0%였으며, 2010년에는 364개 중 29개, 2011년에는 373개 중 16개 과정에서 취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25명은 취업연수 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성과를 내지 못한 것 나타남.
- 향후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연수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생들의 중도 하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연수대상 및 연수기관 모집선발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제한 등 일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단기간 취업상태 유지로 해외취업의 실질적 효과미비

- 해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인원을 대상으로 출입국조회자료에 의한 간접 확인결과에 따르면 해외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인 인원이 전체 조사인원의 약 40.7%를 차지하여 상당수가 단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비자 등 사업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취업을 단기간 동안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면 동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의 해외취업은 경력관리에도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사업 사전관리 미흡

- 해외인턴 선발자들은 본인이 해외에 나가서 어떠한 경험을 쌓게 될 것이며, 해외인턴 기간 동안 주의해야 할 부분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았을 때 현장경험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각 부처의 해외인턴사업의 국내 교육기간을 살펴보면 매우 단시간에 이루어져 있어 사업의 사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해외인턴사업 중 해외관광인턴 사업, 중소기업해외인턴사업, 자원개발분야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해외파견 인원에 대해 귀국 후 취업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별 연계미흡 및 유사·중복 사업 발생

- 해외봉사사업은 KOICA 해외봉사단사업, 대한민국 IT 봉사단사업, 대학생 해외봉사단사업,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사업으로 구성되며, 동 사업들은 사업 목적, 사업내용 등이 유사함에도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여러 수행기관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음.

3. 성과관리 단계

□ 해외취업사업 질적개선 필요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취업 양성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수정목표 기준 목표 총 8,478명에 실적 8,875명으로 총 397명 초과달성함.

-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계획상 1인당 취업비용은 평균 987만원이었으나 초과달성 하여 실제 소요된 1인당 취업비용이 939만원으로 3년 평균 1인당 48만원 차이가 발생함.
- 이처럼 해외취업사업은 계획대비 실적을 초과달성 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평가할만함.
- 다만 이러한 결과는 사업초기단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서 의결된 확정금액보다 예산을 초과하여 투입한 결과이며, 비록 취업인원 수가 많다 하더라도 취업상태 단기유지, 단순노무직으로 직종편중 등 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여전히 아쉬운 측면이 있음.
- 한편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해외취업 목표인원을 2012년 3,200명, 2013년 3,100명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초기당시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해외취업 목표인원을 당초 계획한 목표인원인 24,265명에서 14,778명으로 수정하여 한 차례 목표인원을 9,478명(39.0%) 감소시킨 바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취업 실적은 수정된 목표를 397명 초과달성 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해외취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2013년 해외취업 목표인원을 현재보다 더욱 도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양정성과도 중요하지만 해외취업의 질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성과실적 과다산정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집계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실적은 총 36,426명지만 실제 실적인원은 30,118명으로 6,308명(17.3%)의 실적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나타남.
 - 각 부처에서 제출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진행한 결과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사업의 연도별 양성실적은 2009년 11,009명, 2010년 11,600명,

2011년 13,817명임.

- 그러나 이는 각 사업별로 과다 집계된 실적이며, 실제 실적은 2009년 8,986명, 2010년 9,335명, 2011년 11,797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실적이 과다집계 된 이유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국무총리실은 민간알선취업 실적을 정부실적으로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집계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알선취업 실적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 아니며, 민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업실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수행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실적에 포함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알선취업자 실적 2009년 1,485명, 2010년 1,449명, 2011년 1,318명 등 총 4,252명을 정부실적에 포함하여 집계하였음.
 -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는 2008년 4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 수립당시 정부예산지원이 없더라도 민간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연도별 목표를 부여하여 실적 관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기관들의 실적도 정부실적으로 집계해야 한다고 설명함.
 - 그러나 단순히 정부에서 실적관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간기관의 실적을 정부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정부실적에 포함하여 집계할 수 없음.
- 둘째, 해외건설인력양성 사업의 실적은 순수하게 해외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만을 집계해야 함.
 - 그러나 해외취업자 명단을 살펴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취업실적이라고 한 집계한 2,013명 중 2012년 2월 기준 해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단 555명 뿐이며, 나머지 1,458명은 취업업체가 100% 국내기업일 뿐만 아니라 근무지 역시 국내인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중 1,458명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국내기업 취업인원이므로 해외취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해외취업실적이 과다산정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2009년 386명, 2010년 673명, 2011년 399명, 총 1,458명 과다집계 됨.
 -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시공하는 인원뿐만 아니

라 국내에서 해외건설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도 해외취업인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인력은 국내 취업인원으로 분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만약 국토해양부의 논리대로 해외파견 전 국내현장경험을 거친 후에 해외에 파견한다고 하여 건설분야에서 국내지원인력을 해외취업 실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남기게 된다면 그 외 직종에서 대해서도 국내지원인력 혹은 국내현장경험 인력을 해외취업인력 실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짐으로써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큼.
- 셋째, 통상적으로 인턴사업은 취업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현장경험을 쌓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므로 사업내용에 현장실습은 배제되고 단순히 교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해외인턴사업 실적이라고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생들을 해외인턴실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사업실적을 과다산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경제부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턴사업의 경우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단기과정의 세부사업 내용은 GTEP이라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짐. 그리고 동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협회, 국내 대학교, 국내건설팅전문기관 등에서 약 700시간 이상 무역관련 교육을 받는 것임.
 - 또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전원 해외파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 중 선발된 일부 우수교육생에 한하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파견을 보내고 있는바,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턴사업(단기) 인원은 실적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지식경제부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2009년과 2010년까지는 실적으로 산정해오다가 2011년 목표 산정시 단기과정 인원은 제외한 바 있음.
 - 그러나 2011년 이전인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집계실적은 단기과정 인원을 포함하여 교육생 전체인원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교육생을 해외인턴 실적인원으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9년 149명, 2010년 143명, 총 292명 과다집계 되었음.

- 넷째, ODA 청년인턴 등 일부 인턴사업의 경우 실적은 인턴선발인원 수가 아닌 실제 해외인턴 파견자 수로 집계해야 함.
 - 즉 인턴대상자로 선발된 이후 실제 해외로 파견되지 않은 인원은 실적에서 제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발대상자까지 해외파견 실적으로 집계하고 있어 218명가량 과다측정 되고 있음.
 - 그 외 플랜트해외인턴, 해외관광인턴, 국제전문여성인턴, 중소기업해외인턴 사업 역시 실제 출국인원이 아닌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하여 실적을 단순과다 산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총리실 실적은 총 36,426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과다집계 된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인원은 30,118명으로 약 6,308명가량 차이가 남.
 - 이처럼 정부에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적 집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무총리실은 사업수행 부처가 인턴선발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한 인원을 실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취업률 조사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아닌 실제 해외취업만을 실적으로 집계하였어야 하는 등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었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미흡하여 부처별로 실적 집계시 혼선을 빚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취업률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년도 해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해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바, 국무총리실은 전년도 해외 일자리 사업 추진진도 현황 및 실적,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등을 담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국회보고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¹⁾ 제12조의1 신

1)「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설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은 현재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사업추진현황을 각 부처에서 예·결산 등을 통해 이미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국회 보고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함.
- 그러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 뒤 2013년에 종결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동안 정부에서 해외일자리 창출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입하였던 예산이 매몰되는 등 각종 매몰비용이 커지게 됨.
- 뿐만 아니라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는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법의 취지를 살려 동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각 7개 부처에서 예·결산을 통해 각각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연도별 양성인원 실적 등 양적성과와 질적성과를 한데 아우르는 통합적인 결과보고가 없으며, 향후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통사 등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다면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회 보고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가. 기업등
나. 대학등
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 ② 기업 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해외인턴·해외봉사사업, 계획 대비 실적미달성으로 예산낭비 발생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은 계획수립 다음해부터 바로 하향조정 되어 추진되었는데, 이처럼 당초 계획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목표기준 대비 실적 달성률을 살펴본 결과, 해외인턴사업과 해외봉사사업 중 해외건설인력양성 사업, 해외농업인턴, 해외관광인턴 등 일부 사업은 평균 예산집행률이 99.9%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건설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10명을 양성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실적은 555명에 불과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255명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농업분야인턴사업은 총 445명 양성계획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367명으로 88명 부족함.
- 이 때 계획 대비 실적미달성 사례는 물론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 낭비 측면에서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짐.
- 왜냐하면 정부는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사업의 양성목표인원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예산편성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집행 실적은 높는데 예산편성시 계획한 인원만큼 실제로 양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예산집행률 9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비 실적미달성인 6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909명을 배출할 계획이었으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총 166억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정부는 이 중 166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처럼 예산집행률은 99.9%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획대비 총 462명 미달성 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상 그만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실제로 정부에서 당초계획한 1인당 양성비용과 실제 정부에서 투입한 1인당 양성비용을 비교해보면, 계획대비 실적미달성인 6개 사업의 1인당 양성비용은 평균 874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평균 1,153만원 소요되어 1인당 양성비용은 평균 279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별로 살펴보면, 해외봉사활동 사업의 하나인 개도국과학 기술지원단 사업의 경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1인당 양성비용이 2,310만원이 있어야 하나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실제 1인당 양성비용은 4,307만원까지 115.7% 증가하였으며, 해외건설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1인당 양성비용이 770만원이었어야 하나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실제 1인당 양성비용은 1,100만원으로 42.9% 증가함.
- 따라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 달성정도에 따라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취업취약계층 지원성과 미흡

- 정부는 수요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해외인턴선발자 중 취업취약계층을 10% 이상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2011년 취업취약계층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도 부처별로 매우 상이하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않음.
- 정부가 수립하였던 취업취약계층 지원계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지원의 필요가 적고 시간적·재정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오히려 인턴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해외인턴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보다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동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취업취약계층 선발시 우대, 자비부담 면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업 통합시행 미흡으로 성과관리 부실

- 정부는 부처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기관과 국민 사이에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2010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 한 바 있으며, 이에 필요한 통합운영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형식적으로 예산만 통합되었을 뿐 사업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수행기관도 여전히 그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들 기관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실함.

□ 폐지된 유사사업의 문제점 개선 미흡

-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은 (구)해외인턴사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구)해외인턴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전반에 대해 평가한 결과 양적성공에 치중하여 사업의 사전·사후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적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법령개정사항 제안

- 현재 해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바, 국무총리실은 전년도 해외 일자리 사업 추진진도 현황 및 실적, 부처별·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담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국회보고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²⁾ 제12조의1 신설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 가. 기업등
 - 나. 대학등
 - 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은 현재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사업추진현황을 각 부처에서 예·결산 등을 통해 이미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국회 보고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함.
- 그러나 현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고용 및 취업 이슈는 한시적으로 추진하여 어느 시점에 종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각종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임.
- 또한 그동안 투입되었던 해외일자리 창출기반 구축비용 등에 대한 매몰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법적근거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한시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국무총리실의 설명대로 현재 각 7개 부처에서 예·결산을 통해 각각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연도별 양성인원 실적 등 양적성과와 질적성과를 한데 아우르는 통합적인 결과 보고가 없는바, 향후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통사 등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다면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회 보고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제안

- 국무총리실은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글로벌일자리 사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실적 등 각종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② 기업 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연수생들의 중도 하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연수대상 및 연수기관 모집선발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제한 등 일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 직종 중 단순 노무직의 경우 국가적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해외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는 양질의 해외취업 직종을 개발하여 1년 이상의 장기 연수기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 문제 등 제반여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보다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해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사업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귀국 후에도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차 례

I. 서 론

II.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현황

1. 사업개요	3
2. 예산현황	5
3. 성과관리 현황	9
4.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보완·발전방안 마련현황	12

III. 글로벌 일자리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사업계획 단계	13
가. 당초 계획 대비 수정·변경 사항 과다	13
2. 사업집행 단계	15
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초과 발생	15
나. 사무/서비스직으로 해외취업 편중	17
다. 해외취업연수 중도하차에 따른 예산낭비	23
라. 단기간 취업상태 유지로 해외취업의 실질적 효과미비	25
마. 사업 사전관리 미흡	26
바. 사업 사후관리 미흡	27
사. 사업별 연계미흡 및 유사·중복 사업 발생	29
3. 성과관리 단계	33
가. 해외취업사업 질적개선 필요	33
나. 사업실적 과다산정	35
다. 해외인턴·해외봉사사업, 계획 대비 실적미달성으로 예산낭비 발생	41
라. 취업취약계층 지원성과 미흡	44
마. 사업 통합시행 미흡으로 성과관리 부실	46
바. 폐지된 유사사업의 문제점 개선 미흡	51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55

참고문헌 / 61

표 차례

[표 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분야별 정책목표, 대상 및 계획	4
[표 2] 부처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현황(2011년 기준)	5
[표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2009~2012년	6
[표 4]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부처별 예산현황: 2009~2012년	8
[표 5]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분야별 예산현황	8
[표 6] 해외취업 사업 성과관리 현황(고용노동부)	10
[표 7] 해외인턴 사업 성과관리 현황(교육과학기술부)	11
[표 8] 해외봉사 사업 성과관리 현황(외교통상부)	11
[표 9]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양성 계획: 2009~2013년	14
[표 10] 해외취업연수사업 부족재원 확보계획	17
[표 11] 해외취업연수사업 직종별 취업 현황: 2009~2011년	18
[표 12] 해외취업알선사업 직종별 취업 현황: 2009~2011년	18
[표 13] 2011년 해외취업연수사업 사무/서비스업 세부직종별 취업 현황	20
[표 14] 2011년 해외취업알선사업 사무/서비스업 세부직종별 취업 현황	21
[표 15] 연도별 해외취업연수 수료실적: 2008~2011년	24
[표 16] 취업실적이 없는 연수기관 현황: 2009~2011년	24
[표 17] 취업자에 대한 체류유지 현황	26
[표 18] 해외인턴사업 교육기간 현황	27
[표 19] 취업연계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해외인턴사업	28
[표 20] 해외봉사사업 비교	31
[표 21] KOICA 해외봉사단사업의 분야별 파견 인원 현황: 2008~2011년	32
[표 22] 연도별 해외취업 양성 계획 및 실적현황: 2009~2013년	34
[표 23] 해외취업 1인당 양성비용 현황	34
[표 24] 연도별 양성실적: 2009~2011년(단위: 명)	40
[표 25]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계획 대비 실적미달성 사업: 2009~2011년	42

[표 26]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계획 대비 성과미달성 사업 예산집행률	42
[표 27]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계획상 1인당 양성비용: 2009~2011년 합계	43
[표 28]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실제 1인당 양성비용: 2009~2011년 합계	43
[표 29]	취업취약계층 지원성과가 미흡한 해외인턴사업	45
[표 30]	해외봉사사업 취업취약계층 재정지원 현황: 2009~2011년	46
[표 31]	해외인턴분야사업 통합운영비 현황	47
[표 3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통합내역	48
[표 33]	2011년 해외봉사단 사업 성과측정 현황	51
[표 34]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과 (구)해외인턴사업의 비교	52

그림 차례

[그림 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구성	3
[그림 2]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기본방향	4
[그림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2009~2012년	7
[그림 4]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사업별 예산현황	9
[그림 5]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양성 계획 수정·변경 현황: 2009~2013년 ..	14
[그림 6]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분야별 양성 계획 수정·변경 현황: 2009~2013년 ..	15
[그림 7] i) 해외취업연수사업 및 ii) 해외취업알선사업 직종별 취업 비율: 2009~2011년 ..	19
[그림 8] 일본국제협력단(JICA) 해외봉사단 귀국단원 진로파악 현황	29
[그림 9] 2011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체계도	49

I. 서 론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2009년부터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무대를 국내 노동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7개 이상의 중앙부처에서는 매해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한 해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일부 중산층 대학생의 어학연수로 전락하였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글로벌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 4년차를 맞이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8개 부처의 예산 및 사업실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효과성 및 효율성, 유사·중복성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¹⁾

1) 본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에 수록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해외취업 분야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 해외취업 직종편중 문제 등 새로운 내용을 발굴하여 개선·보완하고, 각종 자료를 부처가 제출하는 최신자료로 교체 하였으며, 사업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함.

II.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현황

1. 사업개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10만 명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으로도 칭해지고 있다. 2008년 국무총리실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정부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외취업, 해외인턴·봉사, 인프라 분야별로 전략과 과제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수립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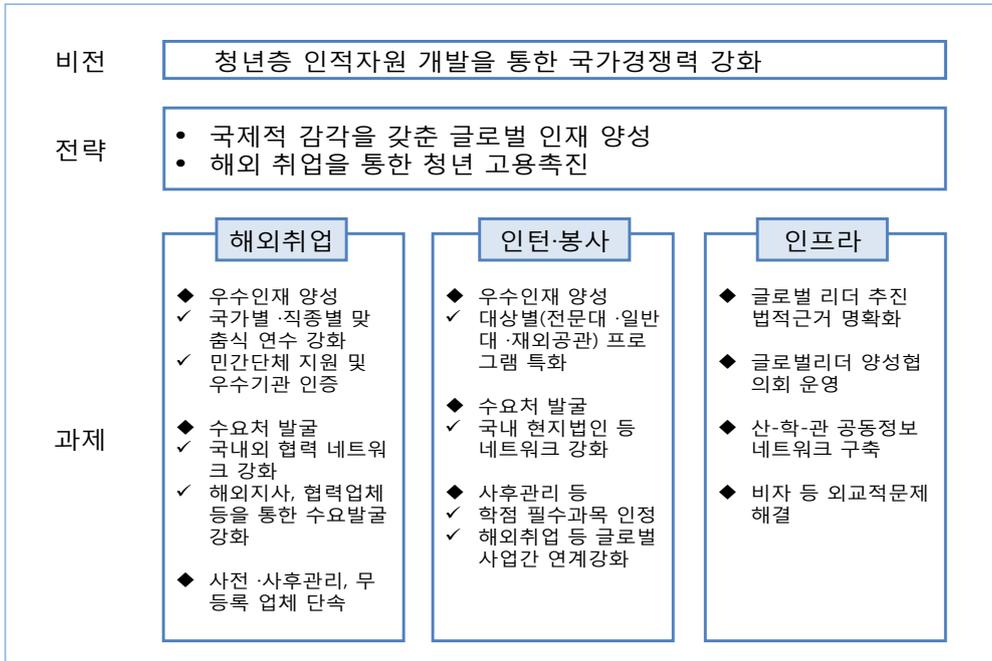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사업으로 분류된다. 2008년 확정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¹⁾에 따르면 2013년까지 해외취업 5만 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총 10만명을 양성하도록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림 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구성



1)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고용부, 국토해양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공동 작성.

[그림 2]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기본방향



자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분야별 정책목표, 대상 및 계획

	정책목표	사업대상	연차별 계획	
			2008	2009 ~ 2013
해외 취업	해외취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고용촉진	학교 졸업(예정)자, 청년실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	통합 정보망 구축, 거점대학 육성 등 인프라 확충	최종 5만명 달성 추진
해외 인턴	국제적 경험축적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인프라 구축 산, 학, 관 연계 방안 강구	최종 3만명 달성 추진
해외 봉사	개도국 자원봉사 등을 통한 국제적 감각이 있는 인재 육성	봉사, 희생정신을 갖춘 인재, 의료, 컴퓨터 등 기술인력	KOICA 중심 개선책 마련 단·중기과정 신설추진	최종 2만명 달성 추진

자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4 • II.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현황

2. 예산현황

2012년 기준으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7개 부처에서 10개 사업으로 운영되며, 재원은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투입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예산은 4,868억 3,900만원이며,²⁾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983억 700만원, 2010년 1,207억 5,300만원, 2011년 1,355억 6,600만원이다. 2012년 예산액은 작년 대비 2.5% 감소한 1,322억 1,300만원이다.

[표 2] 부처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현황(2011년 기준)

	부처명	세부사업	사업명	회계구분
해외 취업 (2)	고용부	글로벌취업지원	해외취업연수 해외취업알선	일반회계
	국토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해외건설인력양성	
해외 인턴 (6)	교과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글로벌현장학습	일반회계
			한미대학생연수취업(WEST)	
			전문대학생 해외현장실습	
			글로벌무역전문가인턴	
			전시해외인턴	
			플랜트해외인턴	
			해외농업인턴	
			해외관광인턴	
			국제전문여성인력	
			중소기업해외인턴	
교사대졸업자해외진출				
외식기업청년인턴				
		2단계 연구중심대학육성	글로벌인턴쉽	
지경부	에너지인력양성(R&D)	자원개발분야 해외인턴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농진청	국제농업기술협력	해외농업연구인턴	일반회계	
국토부	항공전문인력양성	항공인턴쉽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산림분야 해외인턴		
외교부	협력사업지원	ODA 청년인턴		
해외 봉사 (1)	외교부	해외봉사단	KOICA 해외봉사단	일반회계
			대한민국 IT 봉사단	
			대학생 해외봉사단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주: 2012년 신규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유럽글로벌기업해외인턴, 한인기업해외인턴사업과 국토해양부의 물류인력해외인턴 사업이 있음.

자료: 국무총리실 제출자료 및 각 부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세부분야인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를 모두 합한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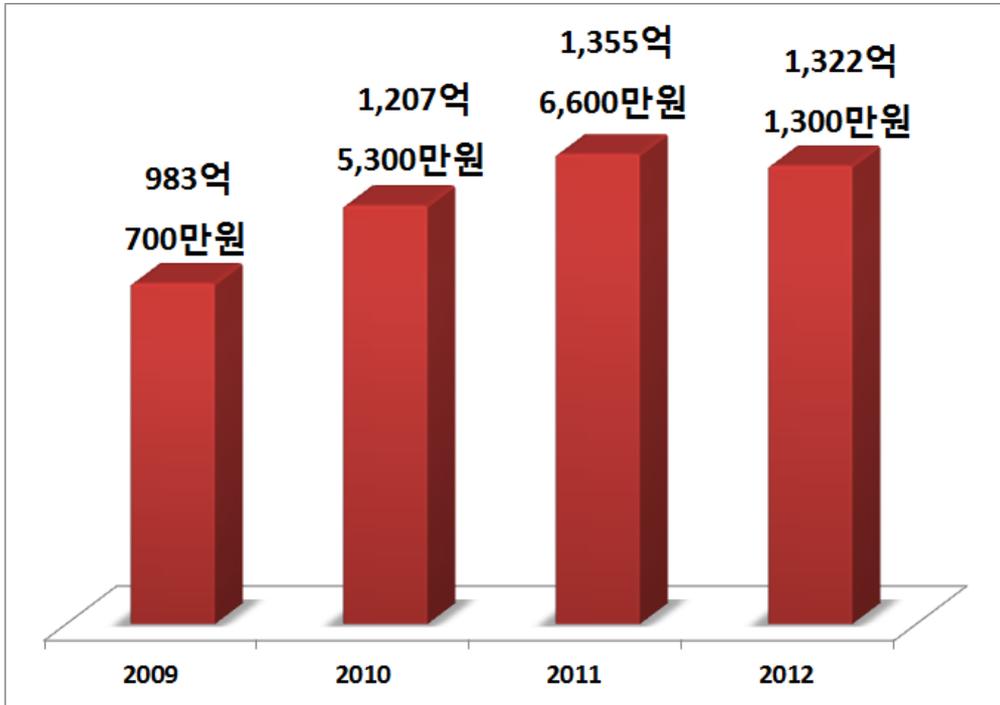
[표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2009~2012년

(단위: 백만원)

사업 세부내역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해외취업연수(고용부)	18,296	16,515	20,867	20,867	25,600	25,600	14,250
해외취업알선(고용부)	1,978	1,965	2,891	2,886	2,947	2,942	3,578
해외건설인력양성(고용부)	2,300	2,300	2,300	2,300	2,300	2,300	4,500
해 외 취 업 소 계	22,574	20,780	26,058	26,053	30,847	30,842	22,328
대학생 글로벌현장학습(교과부)	1,200	1,200	1,200	1,200	1,300	1,300	1,206
한미대학생연수취업(교과부)	5,000	1,536	4,669	4,662	5,000	4,931	4,819
전문대학생 해외현장실습(교과부)	5,106	5,106	5,000	5,000	5,000	5,000	4,621
글로벌무역전문가인턴(교과부)	1,343	1,343	1,209	1,209	1,112	1,112	908
전시해외인턴(교과부)	1,346	1,346	1,212	1,212	1,116	1,116	758
플랜트해외인턴(교과부)	2,140	2,140	1,926	1,926	1,772	1,772	1,157
유럽글로벌 기업해외인턴(교과부)	—	—	—	—	—	—	491
한인기업해외인턴(교과부)	—	—	—	—	—	—	535
해외농업인턴(교과부)	315	315	189	189	200	200	200
해외관광인턴(교과부)	—	—	650	650	700	700	700
국제전문여성인력(교과부)	372	317	320	264	400	400	400
중소기업해외인턴(교과부)	—	—	—	—	2,100	1,708	2,084
교사대졸업자해외진출(교과부)	—	—	—	—	500	499	407
외식기업청년인턴(교과부)	—	—	—	—	1,600	1,000	950
물류인력해외인턴(교과부)	—	—	—	—	—	—	432
통합운영비(교과부)	—	—	—	—	699	447	806
글로벌인턴십(교과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해외농업연구인턴(농진청)	910	910	971	964	1,016	1,016	2,090
자원개발분야 해외인턴(지경부)	—	—	—	—	1,500	1,500	1,500
항공인턴십(국토부)	—	—	400	400	400	400	400
산림분야 해외인턴(산림청)	255	183	255	205	255	163	255
ODA 청년인턴(외교부)	—	—	—	—	6,870	6,870	8,590
해외행정인턴(외교부)	—	1,272	—	—	—	—	—
해 외 인 턴 소 계	18,987	16,668	19,001	18,881	32,540	31,134	33,309
KOICA 해외봉사단(외교부)	50,942	50,942	70,842	70,842	67,142	67,142	70,813
대한민국 IT 봉사단(행안부)	3,030	3,030	2,890	2,890	2,890	2,890	2,963
대학생 해외봉사단(교과부)	1,927	1,927	1,115	1,115	1,300	1,300	1,338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교과부)	847	847	847	847	847	847	1,462
해 외 봉 사 소 계	56,746	56,746	75,694	75,694	72,179	72,179	76,576
총 계	98,307	94,194	120,753	120,628	135,566	134,155	132,213

자료: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그림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2009~2012년



자료: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처별 예산총액을 살펴보면, ① 외교통상부가 2,751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② 고용노동부 1,018억 700만원, ③ 교육과학기술부 878억 5,300만원, ④ 행정안전부 117억 7,300만원, ⑤ 농촌진흥청 49억 8,700만원, ⑥ 지식경제부 30억원, ⑦ 국토해양부 12억원, ⑧ 산림청 10억 2,000만원 순이다.

2012년 기준으로는 ① 외교통상부가 794억 3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② 교육과학기술부 232억 7,400만원, ③ 고용노동부 223억 2,800만원, ④ 행정안전부 29억 6,300만원, ⑤ 농촌진흥청 20억 9,000만원, ⑥ 지식경제부 15억원, ⑦ 국토해양부 4억원, ⑧ 산림청 2억 5,500만원 순이다.

[표 4]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부처별 예산현황: 2009~2012년

(단위: 백만원)

순위	부처명	2009	2010	2011	2012	합 계
1	외교통상부	50,942	70,842	74,012	79,403	275,199
2	고용노동부	22,574	26,058	30,847	22,328	101,807
3	교육과학기술부	20,596	19,337	24,646	23,274	87,853
4	행정안전부	3,030	2,890	2,890	2,963	11,773
5	농촌진흥청	910	971	1,016	2,090	4,987
6	지식경제부	—	—	1,500	1,500	3,000
7	국토해양부	—	400	400	400	1,200
8	산림청	255	255	255	255	1,020
합 계		98,307	120,753	135,566	132,213	486,839

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합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함.

자료: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분야별 예산총액을 살펴보면, 해외봉사분야 사업 예산이 총 2,811억 9,5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 해외인턴분야 사업 1,038억 3,700만원, 해외취업분야 사업 1,018억 700만원 순이다.

2012년 기준으로는 해외봉사분야 사업 예산이 765억 7,6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 해외인턴 분야 사업 예산은 333억 900만원, 해외취업 분야 사업예산은 223억 2,800만원 순이다.

[표 5]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분야별 예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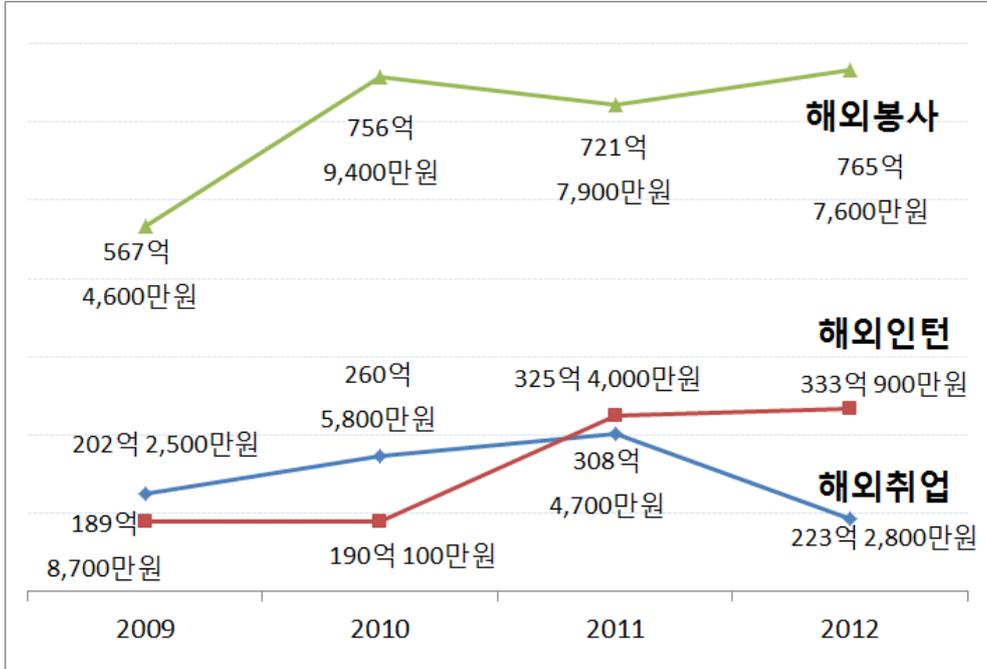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분야	2009	2010	2011	2012	합 계
해외취업	22,574	26,058	30,847	22,328	101,807
해외인턴	18,987	19,001	32,540	33,309	103,837
해외봉사	56,746	75,694	72,179	76,576	281,195
합 계	98,307	120,753	135,566	132,213	486,839

자료: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그림 4]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3. 성과관리 현황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분야별로 성과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상 해외취업 사업 성과관리지표로는 고용노동부의 「연수취업률」, 「구인요청건수」, 「알선취업자 수」가 있다. 이 중 성과지표 「연수취업률」은 해외취업연수인원 중 취업률 비율로 구하며, 2011년 목표 37.5에 실적 55.6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148.3%이다. 다음 성과지표 「구인요청건수 증가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된 전년도 구인요청인원 대비 금년도 구인요청 인원의 증가분을 구한 것으로 2011년 목표 5에 실적 6.4로 달성률은 128%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알선취업자 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알선하여 해외취업에 성공한 인원 수로 목표 2011년 목표 500에 실적 505로 달성률은 101%이다.

[표 6] 해외취업 사업 성과관리 현황(고용노동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09	2010	2011
글로벌 취업지원 (고용부)	연수취업률 (%)	취업인원/연수인원 ×100%	목표	23.4	37.2	37.5
			실적	23.4	34.8	55.6
			달성률(%)	100	93.5	148.3
	구인요청건수 증가율(%)	[(금년도 구인요청 인원/전년도 구인 요청 인원)-1]×100	목표		신규	5
			실적		신규	6.4
			달성률(%)		신규	128
	알선취업자수 (명)	알선취업자 수	목표	300	400	500
			실적	369	570	505
			달성률(%)	123	142.5	101

자료: 고용노동부,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해외인턴 사업의 경우 과거 각 부처에서 수행되어 오던 인턴사업이 2011년에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어 성과지표는 2012년에 새롭게 설정되었으며, 2012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취업취약계층 참여율」과 「참여자 만족도」이다. 이 중 성과지표 「취업취약계층 참여율」은 전체 인턴파견자 수 중 취업취약계층 참여자 수의 비율로 측정하며, 2012년 목표는 20%이다. 그리고 성과지표 「참여자 만족도」 해외인턴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하며, 2012년 목표는 3.0 점이다.

[표 7] 해외인턴 사업 성과관리 현황(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명	성과지표	201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실적 및 목표치		
				2010 실적	2011 실적	2012 목표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취업취약계층 참여율	전년도 목표 대비 100% 상향 목표치 설정	(취업취약계층 참여자 수/전체 파견자수)×100	신규	10%	20%
	참여자 만족도	2012년 신규지표 이므로 평균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 (5점 척도 3점 이상)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	신규	신규	3.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회계연도 성과계획서.

해외봉사 사업의 성과지표는 「해외봉사단 협력기관 만족도」와 「해외 봉사단원 만족도」가 있다. OECD DAC의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적절성, 효과성, 영향력, 효율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측정 기준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여 해외봉사단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성과지표 「해외봉사단 협력기관 만족도」의 2011년 목표는 91이며, 실적은 89로 달성률은 98%이고, 성과지표 「해외봉사단원 만족도」의 2011년 목표는 84에 실적은 81로 달성률은 96%이다.

[표 8] 해외봉사 사업 성과관리 현황(외교통상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09	2010	2011
해외봉사단 (외교부)	해외봉사단 협력기관 만족도(점)	$\Sigma(\text{적절성}+\text{효과성}+\text{영향력}+\text{효율성}+\text{지속가능성})/5$	목표	80	90	91
			실적	88	89	89
			달성률(%)	110	99	98
	해외 봉사단원 만족도(점)	$\Sigma(\text{적절성}+\text{효과성}+\text{영향력}+\text{효율성}+\text{지속가능성})/5$	목표	83	83	84
			실적	82	83	81
			달성률(%)	99	100	96

자료: 외교통상부,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4.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보완·발전방안 마련현황

정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 4년차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9년 사업 시행 후 2012년 6월까지 총 44,376명을 해외에 파견하였으며,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사업에 대해 통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파견국가를 다변화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다만 사업이 해외취업·해외인턴·해외봉사 사업이 통합 추진되면서 각 사업별 특화발전 부족, 양질의 일자리 발굴 미흡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취업/인턴·봉사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해외취업사업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리크루트사·KOTRA 등과의 협업을 통해 수요처 발굴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도국 진출시 훈련비 부담금(기존 30%)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사전에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한 후 그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형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관 주도에서 민간 해외취업기관에 의한 취업 알선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 해외인턴사업은 교과부를 중심으로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 간 MOU 또는 인턴십 교류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해외 인턴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해외봉사사업은 정부지원이 긴요한 취약계층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해외봉사 참가비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의 해외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Ⅲ. 글로벌 일자리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사업계획 단계

가. 당초 계획 대비 수정·변경 사항 과다

10만명 양성사업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2009년 추진 시작 당 해 연도부터 하향 조정되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당초 계획인원은 14,737명이었으나 9,459명으로 5,278명(35.8%)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20,753명에서 10,908명으로 9,845명(47.4%)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21,935명에서 12,514명으로 9,421명(42.9%), 2012년은 23,322명에서 11,453명으로 11,869명(50.9%), 2013년에는 24,210명에서 20,507명으로 3,703명(15.3)%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당초 양성 계획인원은 104,957명이었으나 64,841명으로 40,116명(38.2%) 감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한 경기악화로 자국민 고용 문제 해결 우선추진, 해외취업 구인처 확보 어려움, 예산확보의 어려움, 환율 상승 등의 여건 악화를 사업계획 변경 사유로 제시하였다. 물론 해외여건 및 추진상황 등이 반영되어 사업추진계획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국무총리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정부지원협의회의 연차별 목표인원 계획을 살펴보면 해외 수요 등 구체적인 목표인원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현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연구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양성 계획: 2009~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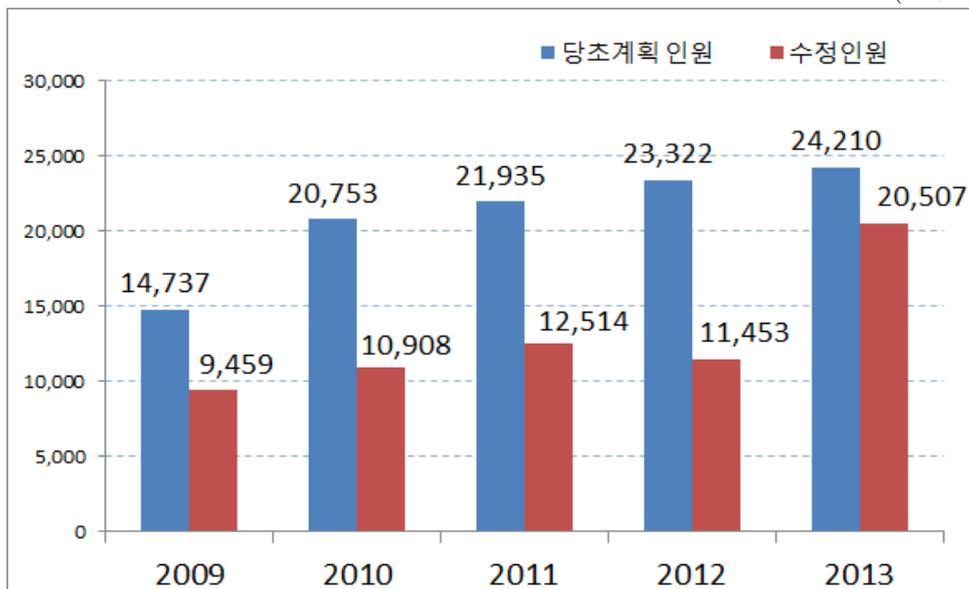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당초 목표	수정 목표	당초 목표	수정 목표	당초 목표	수정 목표	당초 목표	수정 목표	당초 목표	수정 목표	당초 목표	수정 목표
해외취업	7,262	2,800	9,243	4,500	10,315	5,678	11,542	4,700	12,280	8,777	50,642	26,455
해외인턴	3,695	2,879	7,580	2,500	7,580	2,904	7,630	2,800	7,780	7,580	34,265	18,663
해외봉사	3,780	3,780	3,930	3,908	4,040	3,932	4,150	3,953	4,150	4,150	20,050	19,723
합 계	14,737	9,459	20,753	10,908	21,935	12,514	23,322	11,453	24,210	20,507	104,957	64,841
	당초계획대비 5,278명 (35.8%) 감소		당초계획대비 9,845명 (47.4%) 감소		당초계획대비 9,421명 (42.9%) 감소		당초계획대비 11,869명 (50.9%) 감소		당초계획대비 3,703명 (15.3%) 감소		당초계획대비 40,116명 (38.2%) 감소	

자료: 국무총리실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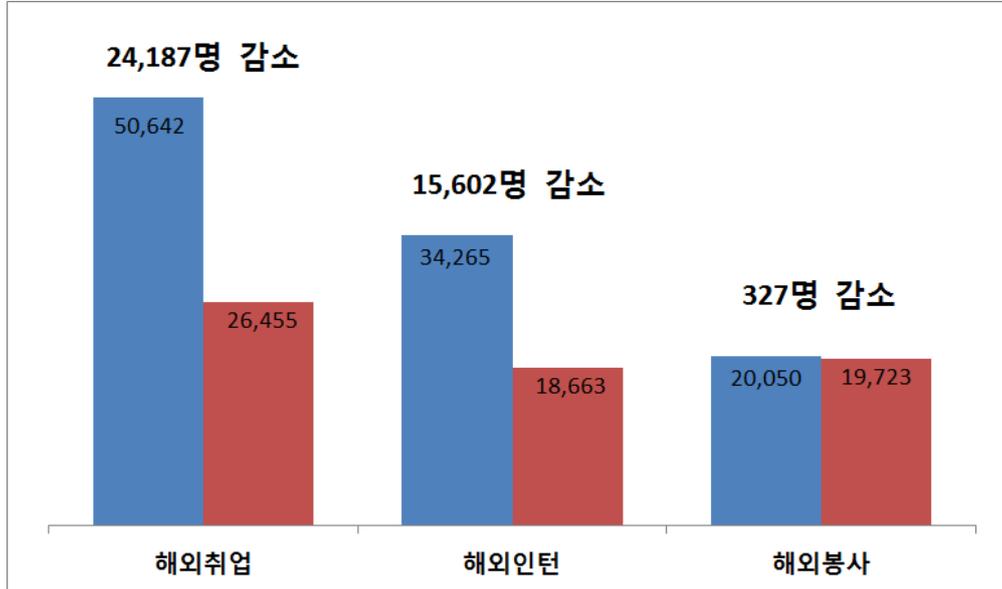
[그림 5]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양성 계획 수정·변경 현황: 2009~2013년

(단위: 명)



자료: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그림 6]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분야별 양성 계획 수정·변경 현황: 2009~2013년
(단위: 명)



자료: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 사업집행 단계

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초과 발생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¹⁾에 근거하여 해외취업사업인 해외취업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 가. 기업등
 - 나. 대학등

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② 기업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연수사업과 해외취업알선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을 위탁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국회에서 의결된 확정금액보다 2010년 137억 9,300만원, 2011년 29억 2,000만원, **총 167억 1,300만원의 예산을 초과집행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잔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추계 과정 없이 2010년, 2011년 2년간 1,549명의 인원을 초과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결과 예산 부족사태가 발생하였고 설명하였다. 가령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수기관과 약정 체결시 회계프로그램에 약정체결액 전액에 대해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월별 연수비 청구시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원인행위 후 지출함으로 인해 예산집행 잔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족재원 167억 1,300만원 중 26억 7,400만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13억 5,100만원은 자체 사업예산 절감분에서 충당, 고용노동부에서는 45억 5,500만원은 사회적기업보조금에서 전용하여 충당하도록 추가 출연 조치하였다.²⁾

부족재원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한 데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상반기에 다른 사업예산 전용이 곤란하고, 당장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퇴직급여충당적립금을 사업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나 퇴직급여충당적립금은 민간자금으로서 국가예산으로 수행되어야 할 국가사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민간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부족분은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하였어야 한다. 또한 민간자금이 국가재정으로 충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자금을 국고로 납입하고 이후 배정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처리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직원퇴직급여충당금과 사회적기업보조금에서 전용하여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81억 3,300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9]

2) 2012년 7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75회 이사회 회의록.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연말에 사업집행 잔액을 바탕으로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표 10] 해외취업연수사업 부족재원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부족액 합계	부족분 확보액			미확보액
	퇴직급여충당적립금	사업비절감	일반회계출연금	
16,713	2,674	1,351	4,555	8,133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75회(2012.7.26) 의사회 회의록.

나. 사무/서비스직으로 해외취업 편중

정부에서 해외취업 실적이라고 산정하고 있는 인원의 직종을 살펴본 결과, **사무·서비스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무/서비스직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한 직종에 정부의 해외취업인원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해외취업사업은 고용노동부의 i) 해외취업연수사업과 ii) 해외취업알선사업으로 구분된다. i)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 구인 수요에 적합한 어학 및 직무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약 1~12개월의 국내·외 연수비를 지원하고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예산액 256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금으로 수행한다.

ii) 해외취업알선사업은 한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해외 고용주에게 고용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직무경력 및 언어능력을 갖춘 한국인재를 알선하는 사업으로, 주요 국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취업설명회 개최 등 구인처 개발 및 직종별 관련 협회와 연계 등 구직자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예산액 29억 4,700만원 중 29억 4,200만원(99.8%)을 집행하였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금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i) 해외취업연수사업의 직종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직종에 비해 사무·서비스업의 비중이 매년 높게 나타났다. 사무/서비

스업 해외취업 비율은 2009년 58.4%(해외취업자 1,202명 중 702명), 2010년 67.9%(해외취업자 2,149명 중 1,459명), 2011년 78.3%(해외취업자 3,552명 중 2,781명)이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11] 해외취업연수사업 직종별 취업 현황: 2009~2011년

(단위: 명)

	IT	의료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설/ 토목	사무/ 서비스	기타	합 계
2009	161	50	25	7	2	702	255	1,202
2010	209	39	27	18	6	1,459	391	2,149
2011	327	44	11	8	10	2,781	371	3,552
합 계	697	133	63	33	18	4,942(71.6%)	1,017	6,903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2. 6)

다음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ii) 해외취업알선사업의 직종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취업연수사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직종에 비해 사무/서비스업의 비중이 매년 높게 나타났다. 사무/서비스업 해외취업 비율은 2009년 31.7%(해외취업자 369명 중 117명), 2010년 77.0%(해외취업자 570명 중 439명), 2011년 71.3%(해외취업자 505명 중 360명)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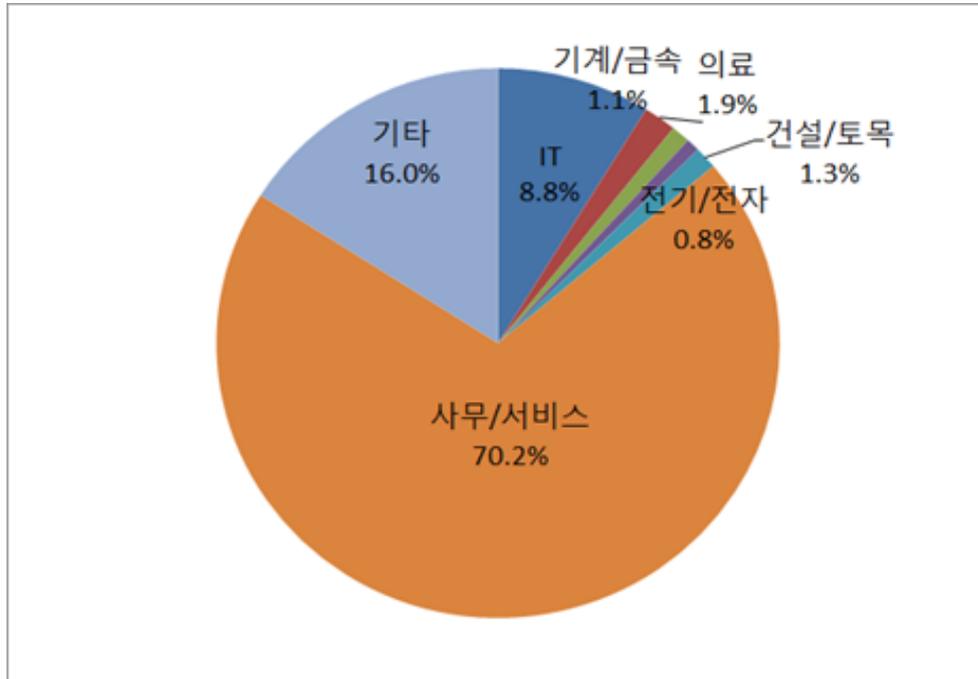
[표 12] 해외취업알선사업 직종별 취업 현황: 2009~2011년

(단위: 명)

	IT	의료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설/ 토목	사무/ 서비스	기타	합 계
2009	5	1	13	6	19	117	208	369
2010	20	10	10	16	22	439	53	570
2011	14	13	5	10	49	360	54	505
합 계	39	24	28	32	90	916(63.4%)	315	1,444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2. 6)

[그림 7] i) 해외취업연수사업 및 ii) 해외취업알선사업 직종별 취업 비율: 2009~2011년³⁾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2. 6)

사무/서비스업 해외취업자의 세부직종을 살펴보면, 호텔 및 숙박시설 서비스 등 종사자, 단순 사무종사자(사무원),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판매(영업)관련 종사자, 이·미용 및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음료서비스종사원(커피숍), 보안서비스 종사원, 운동사무종사자, 피부관리사 등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무/서비스직의 경우 국가적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점을 볼 때,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외취업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의 해외취업사업은 그래프에서 제시한 해외취업연수사업 및 해외취업알선사업 외에도 해외 건설인력양성사업이 있음. 따라서 해외건설인력양성사업 실적을 합산하면 건설/토목 비중이 다소 높아질 수 있음.

[표 13] 2011년 해외취업연수사업 사무/서비스업 세부직종별 취업 현황

(단위: 명)

직종	인원
호텔관련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617
일반사무종사자	359
일반사무원	333
호텔 및 숙박시설종사자	285
영업기획사무원(마케팅사무원)	163
이·미용 및 대인서비스관련 종사자	126
영업기획 및 지원사무원	110
호텔서비스원	87
판매관련 사무원	77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76
여행 및 안내관련 종사자	53
경영·사업서비스관련 종사자	52
판매관련 종사자	46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종사자	44
무역관련 종사자	42
무역사무원	29
무역·상품중개관련 종사자	22
금융관련 종사자	21
총무 및 인사사무원	20
중국어관광통역안내원	19
매장관리자(점장)	18
주방장 및 조리사	16
항공기승무원	15
음료서비스종사원(커피숍)	13
관광통역안내원	12
무역사무원(중국어)	12
기타 보안서비스종사원	10
이·미용사	10
한식조리사	9
일식조리사	9
영업관련 종사자	8
생산관리원(생산관리사무원 포함)	8
물류관리사	8
무역사무원(일어)	7

직종	인원
유통 및 매장감시원	6
무역영업원 및 해외영업원	6
여행관련 사무종사자	6
네일아티스트	5
생산관리기술자	5
회계·세무관련 전문가	4
항공운송사무원	3
경영서비스관련 전문가	3
무역영업원 및 해외영업원(중국어)	2
경영컨설턴트	2
음식서비스 종사자	2
생산 및 품질관리기술자	1
합 계	2,718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 2012.9.

[표 14] 2011년 해외취업알선사업 사무/서비스업 세부직종별 취업 현황

(단위: 명)

직종	인원
항공기승무원	94
총무 및 인사사무원	26
영업관련 종사자	16
주방장 및 조리사	14
판매관련 사무원	12
고객상담사무원(판매 제외)	11
여행관련 사무종사자	10
영업기획사무원(마케팅사무원)	10
영업기획 및 지원사무원	9
호텔서비스원	9
일반사무종사자	9
일반사무원	9
무역영업원 및 해외영업원	8
메이컵아티스트	8
정부행정사무 및 관리종사자	7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종사자	7
고객관리사무종사자	6

직종	인원
회계·결산·세무사무원(경리)	6
제조업 생산부서 관리자	5
판매관련 종사자	5
영업지원사무원(영업관리사무원)	5
총무 및 인사부서 관리자(부서장)	4
한식조리사	4
무역영업원 및 해외영업원(영어)	4
여행 및 안내관련 종사자	4
회계 및 경리사무종사자	4
생산관리원(생산관리사무원 포함)	4
기획 및 홍보사무원	3
음식조리종사자	3
경리사무원	3
무역관련 종사자	3
생산관리기술자	3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3
물류관리사	2
자재·구매부서 관리자(부서장)	2
피부관리사	2
기계시설·설비관리종사자(공무 포함)	2
인사 및 노사관련 전문가	2
회계·세무관련 전문가	2
경영컨설턴트	2
자재·구매사무종사자	2
무역사무원	2
재무기획자	2
호텔 및 숙박시설종사자	1
일식조리사	1
경영·사업서비스관련 종사자	1
노무관리자	1
항공포워딩	1
산업용기계장비기술영업원	1
무역사무원(영어)	1
식당지배인	1
운송사무종사자	1

직종	인원
기타 오락 및 여가서비스종사원	1
금융사무원	1
생산(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종사자	1
합 계	36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 2012.9.

다. 해외취업연수 중도하차에 따른 예산낭비

해외취업연수 사업은 연수과정 중 중도하차 하는 인원이 매년 약 1,000명 가량 중도하차 하여 해외취업이라는 사업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연수대상 모집선발비, 진행비 등 각종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연수 사업은 해외 구직자의 수요에 부합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구직자를 확보하고, 해외취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연수기관을 선정하고,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연수를 실시한 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외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취업연수 수료실적을 살펴보면, 중도탈락비율은 2008년 23.1%, 2009년 27.7%, 2010년 26.3%, 2011년 15.7%로 평균 22.9%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중도탈락인원은 총 5,070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업연수과정 단계에서 중도 포기하는 인원이 매년 약 1,000명가량 발생하고 있어 해외연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연수대상 모집선발비 등 각종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연수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생들의 중도 하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연수대상 및 연수기관 모집선발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제한 등 일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5] 연도별 해외취업연수 수료실적: 2008~2011년

(단위: 명, %)

	연수기관 수	참여인원 (A)	수료인원 (B)	수료비율 (B/A)	중도탈락 (C)	중도탈락비율 (C/A)
2008	75개	4,160	3,198	76.9	962	23.1
2009	101개	4,637	3,354	72.3	1,283	27.7
2010	135개	6,950	5,124	73.7	1,826	26.3
2011	135개	6,381	5,382	84.3	999	15.7
합 계	446개	22,128	17,058	77.1	5,070	22.9

주: 참여인원과 수료인원은 연수실시년도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특히 이 사업이 해외취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취업률은 중요한 사업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수과정 중 취업실적이 전무한 기관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에는 206개 과정 중 41개 과정이 취업률 0%였으며, 2010년에는 364개 중 29개, 2011년에는 373개 중 16개 과정에서 취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25명은 취업연수 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향후 고용노동부는 연수기관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역량을 검증하여야 하며, 연수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16] 취업실적이 없는 연수기관 현황: 2009~2011년

(단위: 개, 명)

	연수과정		연수인원	중도탈락	연수중	수료
	전체	취업률0%				
2009	206	41	780	317	0	463
2010	364	29	446	229	0	217
2011	373	16	245	100	0	145
합 계	943	86	1,471	646	0	825

주: 2012년 5월 31일 기준임.

2011년도 취업률 0% 16개 과정은 약정기간(연수종료 후 6개월)이 도래한 과정을 대상으로 산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라. 단기간 취업상태 유지로 해외취업의 실질적 효과미비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인원을 대상으로 출입국조회자료에 의한 간접 확인결과에 따르면 해외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인 인원이 전체 조사인원의 약 40.7%를 차지하여 **상당수가 단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또한 취업 전 **해외연수기간이 평균 6개월임을 감안할 때 실제 해외취업 기간은 더 줄어든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수취업자의 실제 취업기간이 대부분 비자 특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시간 취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별 비자발급 구체적으로 기간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F비자⁵⁾로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⁶⁾로 1년간 체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4개월 이상 현지 교육을 받을 경우 8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Co-op 비자⁷⁾로 6개월 동안 취업 할 수 있으며, 이것도 현지교육 6개월을 받아야 가능하다.⁸⁾ 결과적으로 앞서 살펴본 국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 8개월이다.

이처럼 비자 등 사업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취업을 단기간 동안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면 동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의 해외취업은 경력관리에도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연수기간에 비례한 취업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직종을 개발하여 1년 이상의 장기 연수기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 문제 등 사업을 효과적으

4) 단, 출입국조회자료는 단순히 출·입국 기록만을 나타내는 자료로 고용유지상태에서 입국하는 경우도 있음.

5) 중국의 F 비자는 상용(常用)비자라고도 불리며, 수시로 입출국이 가능한 비자로서 1회 혹은 2회만 입출국이 가능한 관광비자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6)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부족한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보통의 관광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지만 만 18세~30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나라에 한하여 1회 발급하여 국가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마련된 제도임.

7) 캐나다의 co-op 비자는 일종의 실습비자로 co-op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한해 발행되는 취업 허가증임. co-op 프로그램은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수강과목에 참여해 직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 있는 프로그램임.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들은 일을 할 수 없지만 co-op 프로그램에는 직무경험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2종류를 모두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

8)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해외취업지원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2012.5.

로 진행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표 17] 취업자에 대한 체류유지 현황

체류 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1년	1년~ 2년	2년~ 3년	3년~ 4년	현지 체류	계
인원 (명)	190	160	302	323	457	280	58	1,742	3,515
비율 (%)	5.4	4.5	8.6	9.2	13.0	8.0	1.7	49.6	100
	40.7					69.3			100

주: 1. 대상: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외취업자로 보고된 3,515명.

2. 조회기간: 2006~1.1~2009.12.31.(일부는 2010.4.15.까지 조회)

자료: 국무총리실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마. 사업 사전관리 미흡

해외인턴사업은 인력양성이라는 사업특성상 사전·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양적성공에만 치중하여 단순 해외출국 인원만 많이 배출하게 되면 해외인턴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으며,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외인턴사업이 가지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전 교육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인턴 선발자들은 본인이 해외에 나가서 어떠한 경험을 쌓게 될 것이며, 해외인턴 기간 동안 주의해야 할 부분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았을 때 현장경험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각 부처의 해외인턴 사업의 국내 교육기간을 살펴보면 매우 단시간에 이루어져 있어 사업의 사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글로벌인턴쉽⁹⁾과 산림청의 산림분야 해외인턴의 경우에는 국내교육기간이 전혀 없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농업인턴 사업은 1일, 플랜트해외인턴 사업과 한미연수취업,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연구인턴 사업은 각각 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해당사업 소관부처에서는 국내교육기간의 내실화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2011년 사업종료됨.

[표 18] 해외인턴사업 교육기간 현황

부처	사업명	1인당 기간		
		국내교육기간	해외교육기간	해외인턴기간
교과부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40시간	0~2개월	2~5개월
	한미연수취업(WEST)	2일	5개월	3~12개월
	전시해외인턴	3일	2일	2개월
	플랜트해외인턴	2일	—	62일
	해외농업인턴	1일	1일	5개월
	해외관광인턴	3일	—	6개월
	국제전문여성인턴	연중수시	해당없음	3~6개월
	교사대졸업자해외진출	3일	—	5~10개월
	외식기업청년인턴	2일	업체별 자체교육	2~12개월
농진청	해외농업연구인턴	2일	—	6개월
교과부	글로벌인턴십	—	—	평균 7개월1주
지경부	자원개발분야 해외인턴	16주		—
국토부	항공인턴십	7일	—	6개월
산림청	산림분야 해외인턴	—	—	8개월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바. 사업 사후관리 미흡

해외인턴사업과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현장 체험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 청년실업 해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주요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파견 인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곧 사업성과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인턴사업 중 해외관광인턴 사업, 중소기업해외인턴사업, 자원개발분야 해외인턴(10) 사업의 경우 해외파견 인원에 대해 귀국 후 취업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자원개발분야 해외인턴 사업은 IMF 이후 폐과 또는 통폐합된 자원개발 관련 대학교육의 인프라를 복원시키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성격을 살펴보면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함. 더불어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해외산업체현장연수 시간만큼 교과목 학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턴사업이 아닌 교육사업 성격이 강함. 따라서 사업목적과 내용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해외취업, 인턴, 봉사사업 범주로 구성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 19] 취업연계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해외인턴사업

부처	사업명	취업 연계 사후관리 여부
교육과학기술부	해외관광인턴	취업연계 활동 없음
	중소기업해외인턴	취업연계 활동 없음
지식경제부	자원개발분야 해외인턴	취업연계 활동 없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사업성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는 해외봉사단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해외봉사단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해외봉사단원이 해외봉사활동 경험과 활동 중 습득한 현지어 능력을 우리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수행기관인 KOICA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외봉사사업 추진전략 중 하나로 봉사단 사후관리 강화를 설정한바 있다.¹¹⁾ 그런데 일반적으로 봉사단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봉사단원의 귀국 후 진로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KOICA의 해외봉사단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순히 용역 리쿠르트사에게 취업을 의뢰하고 있을 뿐 이후 취업유무와 취업직종 등에 대한 귀국단원의 진로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

우리나라 경우와는 달리 일본 JICA¹³⁾의 해외봉사단 사업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5명의 진로상담 카운슬러가 지역별로 귀국단원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들의 진로결정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과 국공립 교사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별 우대제도와 대학·대학원 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한바 있다. 또한 JICA는 2010년 해외봉사단 귀국단원 1,064명의 진로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취업자 681명의 경우에는 어떤 분야로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JICA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자료는 귀국단원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필수정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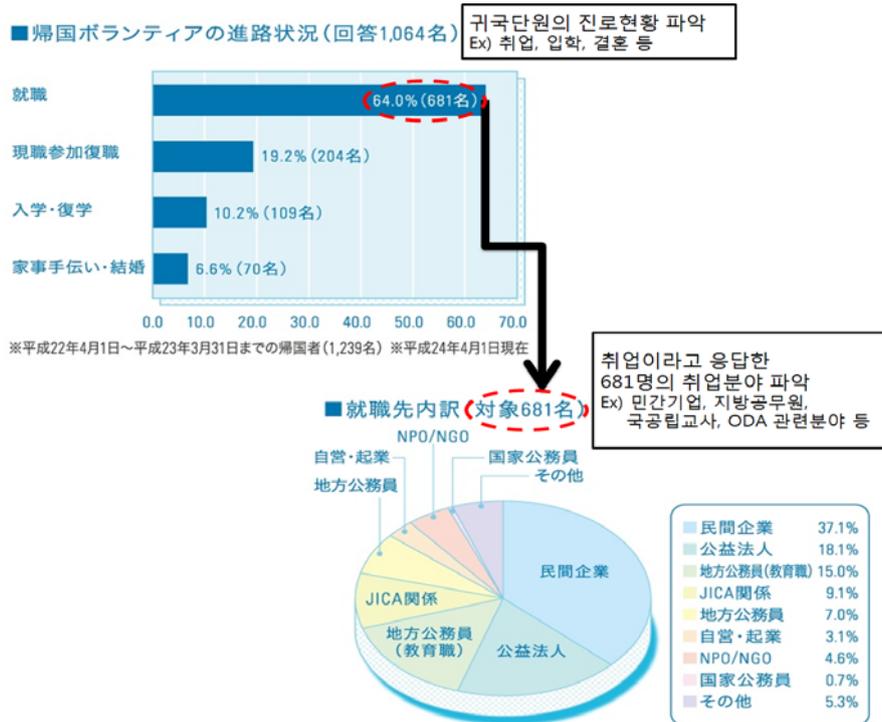
11) 자료: www.koica.go.kr 홈페이지.

12) KOICA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문취업센터는 향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지원하되 해외봉사단 취업현황자료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13)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사회적 협력을 목적으로 세운 기구임. 한국의 국제협력단(KOICA)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음. 1974년 8월 외국기술협력사업단, 외국이주사업단, 외국농업개발재단 등을 통합하여 발족했으며, 2003년 10월부터는 독립 행정법인으로 발족하였음.

할 수 있으므로 일본 JICA의 여러 가지 해외봉사단원 사후관리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귀국 봉사단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일본국제협력단(JICA) 해외봉사단 귀국단원 진로파악 현황



자료: JICA 홈페이지(http://www.jica.go.jp/volunteer/obog/career_support/careerinfo/)

사. 사업별 연계미흡 및 유사·중복 사업 발생

해외봉사사업은 KOICA 해외봉사단사업, 대한민국 IT 봉사단사업, 대학생 해외봉사단사업,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사업으로 구성되며, 동 사업들은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이 유사함에도 수행기관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¹⁵⁾

14) 일본 JICA는 해외봉사단 귀국자 진로파악을 해마다 하고 있으며, 매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음. 2009년에는 해외봉사단 귀국자 1,299명 중 1,141명의 진로현황을 파악함.

15) 각 사업의 예산은 2011년에 외교통상부로 통합되었으나, 수행기관은 여전히 각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음.

KOICA 해외봉사단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민국 IT 봉사단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학생 해외봉사단사업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태평양아시아협회,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사업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4가지 사업 모두 개도국 지원, 국가 이미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봉사단 파견을 내용으로 하며, 파견 대상은 KOICA 해외봉사단사업은 만 20~62세, 대한민국 IT 봉사단사업은 만 18세 이상, 대학생 해외봉사단사업은 대학생,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사업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생 등으로 주로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 또는 졸업생이 참여하고 있다.

각 사업의 활동분야를 살펴보면, KOICA 해외봉사단사업은 교육(한국어 등), 정보통신(IT), 보건의료 등 다양하고, 대한민국 IT 봉사단사업은 IT 교육, 대학생 해외봉사단사업은 한국어 등 교육,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사업은 과학기술 분야 교육 등이다.

[표 20] 해외봉사사업 비교

	KOICA 해외봉사단	대한민국 IT 봉사단	대학생 해외봉사단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개시연도	1990년~	2001년~	1997년~	2006년~	
수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태평양아시아협회(PAS)	한국연구재단	
사업목적	개도국 현지주민의 삶 개선, 양국 간 이해 증진, 해외봉사활동 경험의 사회 환원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IT 코리아 홍보	봉사의식 저변 확대, 국제친선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개도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2011년 집행액	671억 4,200만원	28억 9,000만원	13억원	8억 4,700만원	
2011년 파견인원	981명 (만 20~62세)	612명 (만 18세 이상)	2,676명 (대학생)	21명 (이공계 대학 졸업생)	
활동기간	2년	1개월	2~3주	1년	
활동분야	교육, 정보통신,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농촌개발, 행정제도 등	IT 교육, 프로젝트	한국어 등 교육	과학기술 분야 교육, 기술지도	
관리	해외	KOICA 해외사무소 직원 및 봉사단 관리요원 (관리요원 총 29개국 60명)	공관 위탁	인솔자 동행	공관 위탁
	국내	KOICA 월드프렌즈사업본부 36명	정보화진흥원 글로벌사업팀 4명	대사협 해외봉사팀 3명, PAS 사무국 3명	한국연구재단 아프리카국제기구팀 2명
파견전 국내훈련 프로그램	4주(현지어, 안전교육 등)	4일(정보화 교육, 안전교육 등)	1주(국제개발협력 및 국별 이해 등)	3주(기본소양 및 언어, 안전교육 등)	
현지 적응훈련	8주	—	—	—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2. 6)

2008~2011년 KOICA 해외봉사단사업의 분야별 파견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IT 봉사단사업, 대학생 해외봉사단사업,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 및 정보통신 분야 봉사활동에 파견된 인원이 전체 파견 인원의 54.7%(교육 36.3%, 정보통신 18.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내용이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1] KOICA 해외봉사단사업의 분야별 파견 인원 현황: 2008~2011년

(단위: 명, %)

	교육	정보 통신	보건 의료	산업 에너지	농촌 개발	환경 및 기타	행정 제도	합 계
2008	339	174	135	83	77	114	66	988
2009	349	245	119	77	94	96	20	1,000
2010	332	172	136	82	124	106	48	1,000
2011	422	138	99	88	88	100	46	981
합 계	1,442	729	489	330	383	416	180	3,969
비 율	36.3	18.4	12.3	8.3	9.6	10.5	4.5	100.0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2. 6)

이와 같이 대한민국 IT 봉사단사업, 대학생 해외봉사단사업,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사업은 KOICA 해외봉사단사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수행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어 운영경비 등의 예산이 각 수행기관별로 집행되고 있다.¹⁶⁾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태평양아시아협회,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관리조직(2~4명)이 작고 국내교육훈련기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조직망이 없어 공관에 위탁하거나 인솔자가 동행해야 한다. 반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관리조직(국내 60명)이 크고 국내에 교육기관(한국해외봉사교육원)을 두고 있으며 수원국 현지 해외사무소를 통해 봉사단을 관리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경비 절감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등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¹⁷⁾

16)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특정 전문기술과 경험을 가진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대외원조 정책 마련, 현지 전문성 확보, 해외 네트워크 활용, 사후관리 등의 측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IT 봉사단사업, 대학생 해외봉사단사업,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사업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17) 2008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한국 특별검토보고서(「SPECIAL REVIEW OF KOREA」)에 따르면, 한국은 30여개 기관으로 원조체계가 분산되어 있으며 원조기관간 조율이 부족하고 원조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통합된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2010. 11)).

3. 성과관리 단계

가. 해외취업사업 질적개선 필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취업 양성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수정목표 기준 목표 총 8,478명에 실적 8,875명으로 총 397명 초과달성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업초기에는 해외취업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2011년에는 실적을 초과달성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2009년 목표 1,800명에 실적 1,756명으로 목표대비 44명 실적미달성 하였으며, 2010년에는 목표 3,000명에 2,877명 취업하여 수정목표 대비 123명 미달성 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목표 3,678명에 실적 4,242명으로 564명 초과달성하여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계획상 1인당 취업비용은 평균 987만원이었으나 초과달성 하여 실제 소요된 1인당 취업비용이 939만원으로 3년 평균 1인당 48만원 차이난다.¹⁸⁾¹⁹⁾

이처럼 해외취업사업은 계획대비 실적을 초과달성 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평가할만하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사업초기단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서 의결된 확정금액보다 예산을 초과하여 투입한 결과이며, 비록 취업인원 수가 많다 하더라도 취업상태가 단기간 유지되고, 단순노무직으로 직종이 편중되는 등 해외취업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해외취업 목표인원을 2012년 3,200명, 2013년 3,100명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초기당시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해외취업 목표인원을 당초 계획한 목표인원인 24,265²⁰⁾명에서 14,778명으로 수정하여 한 차례 목표인원을 9,478명(39.0%) 감소시킨 바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취업 실적은 수정된 목표를 397명 초과달성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취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2013년 해외취업 목표인원을 현재보다 더욱 도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8) 동 계산은 사업수행 환경과 여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단순비교를 위해 산정된 것으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19) 해외취업자의 평균연봉액 자료는 파악이 어려움.

20)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 해외취업사업만을 집계함. 비예산으로 추진된 민간알선사업은 제외.

[표 22] 연도별 해외취업 양성 계획 및 실적현황: 2009~2013년

(단위: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당초 목표	수정 목표	실적	당초 목표	수정 목표	실적	당초 목표	수정 목표	실적	당초 목표	수정 목표	당초 목표	수정 목표
해외취업연수	3,382	1,200	1,202	4,075	2,300	2,149	4,372	2,968	3,552	4,669	2,000	4,867	1,300
해외취업알선	300	300	369	350	400	570	375	500	505	400	600	425	1,200
해외건설인력양성	210	300	185	210	300	158	210	210	185	210	600	210	600
합 계	3,892	1,800	1,756	4,635	3,000	2,877	4,957	3,678	4,242	5,279	3,200	5,502	3,100
	수정목표 대비 44명 실적 미달성			수정목표 대비 123명 실적 미달성			수정목표 대비 564명 실적 초과달성			—		—	

주: 민간알선취업 실적은 비예산 사업이므로 제외함.

자료: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3] 해외취업 1인당 양성비용 현황

(단위: 만원)

	2009		2010		2011		평 균	
	정부 계획상 1인당 취업비용	실제 소요된 1인당 취업비용	정부 계획상 1인당 취업비용	실제 소요된 1인당 취업비용	정부 계획상 1인당 취업비용	실제 소요된 1인당 취업비용	정부 계획상 1인당 취업비용	실제 소요된 1인당 취업비용
해외취업연수	1,525	1,374	907	971	863	721	2,098	1,022
해외취업알선	659	533	723	506	589	583	657	540
해외건설인력양성	767	1,243	767	1,456	1,095	1,243	876	1,314
합 계	1,254	1,183	869	906	839	727	987	939
	계획대비1인당 평균 71만원 차이발생		계획대비1인당 평균 37만원 차이발생		계획대비1인당 평균 112만원 차이발생		계획대비1인당 평균 48만원 차이발생	

주: 1. 정부계획상 1인당 양성비용은 예산액/취업목표인원으로 산정함.

2. 실제소요된 1인당 양성비용은 집행액/실제취업인원으로 산정함.

3. 동 계산은 사업수행 환경과 여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단순비교를 위해 산정된 것으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자료: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사업실적 과다산정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집계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실적은 총 36,426명지만 실제 실적인원은 30,118명으로 6,308명(17.3%)의 실적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에서 제출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취합한 자료²¹⁾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진행한 결과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사업의 연도별 양성실적은 2009년 11,009명, 2010년 11,600명, 2011년 13,817명이다. 그러나 이는 각 사업별로 과다 집계된 실적이며, 실제 실적은 2009년 8,986명, 2010년 9,335명, 2011년 11,7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적이 과다집계된 이유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무총리실은 민간알선취업 실적을 정부실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집계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알선취업 실적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 아니며, 민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업실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수행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실적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알선취업자 실적 2009년 1,485명, 2010년 1,449명, 2011년 1,318명 등 총 4,252명을 정부실적에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는 2008년 4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 수립당시 정부예산지원이 없더라도 민간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연도별 목표를 부여하여 실적 관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기관들의 실적도 정부실적으로 집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정부에서 실적관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간기관의 실적을 정부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정부실적에 포함하여 집계할 수 없다.

둘째, 해외건설인력양성 사업의 실적은 순수하게 해외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만을 집계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취업자 명단을 살펴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취업실적이라고 한 집계한 2,013명 중 2012년 2월 기준 해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단 555명²²⁾ 뿐이며, 나머지 1,458명은 취업업체가 100% 국내기업일 뿐만

21) 2012년 5월 1차 취합한 자료를 2012년 9월 2차 취합하여 수정함.

22)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실제로 해외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현재까지 2012년 2월 한 차례 조사하여 연도별 실적은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현장 근무인원 555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당 185명씩 동일하게 취업한 것으로 가정하여 표를 작성함.

아니라 근무지 역시 국내인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중 1,458명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국내기업 취업인원이므로 해외취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해외취업실적이 과다산정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시공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건설 지원업무²³⁾를 수행하는 인원도 해외취업인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인력은 국내 취업인원으로 분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만약 국토해양부의 논리대로 해외파견 전 국내현장경험을 거친 후에 해외에 파견한다고 하여 건설분야에서 국내지원인력을 해외취업 실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남기게 된다면 그 외 직종에서 대해서도 국내지원인력 혹은 국내현장경험 인력을 해외취업인력 실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짐으로써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해외취업실적은 순수 해외에서 근무하는 인력만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는 국내근무인력까지 해외취업 실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2009년 386명, 2010년 673명, 2011년 399명, 총 1,458명 과다집계 되었다.

셋째, 통상적으로 인턴사업은 취업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현장경험을 쌓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내용에 현장실습은 배제되고 단순히 교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해외인턴사업 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생들을 해외인턴실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사업실적을 과다산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턴사업의 경우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단기과정의 세부사업 내용은 GTEP²⁴⁾이라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동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협회, 국내 대학교, 국내건설팅전문기관 등에서 약 700시간 이상 무역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전원 해외파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 중 선발된 일부 우수교육생에 한하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파견을 보내고 있는바,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턴사업(단기) 인원은 실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지식경제부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2009년과 2010년까지는 실적으로 산정해오다가 2011년 목표 산정시 단기과정 인원은 제외한다. 그러나 2011년 이전인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집계실적은 단기과정 인

23) 기획, 설계, 금융 등.

24) GTEP: 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원을 포함하여 교육생 전체인원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교육생을 해외인턴 실적인원으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2009년 149명, 2010년 143명, 총 292명 과다집계 되었다.

넷째, ODA 청년인턴²⁵⁾ 등 일부 인턴사업의 경우 실적은 인턴선발인원 수가 아닌 실제 해외인턴 파견자 수로 집계해야 한다. 즉 인턴대상자로 선발된 이후 실제 해외로 파견되지 않은 인원은 실적에서 제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발대상자까지 해외파견 실적으로 집계하고 있어 218명가량 과다측정 되고 있다.²⁶⁾ 그 외 플랜트해외인턴, 해외관광인턴, 국제전문여성인턴, 중소기업해외인턴 사업 역시 실제 출국인원이 아닌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하여 실적을 단순과다 산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총리실 실적은 총 36,426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과다집계 된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인원은 30,118명으로 약 6,308명가량 차이가 난다. 이처럼 정부에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적 집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무총리실은 사업수행 부처가 인턴선발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한 인원을 실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취업률 조사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아닌 실제 해외취업만을 실적으로 집계하였어야 하는 등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었어야 한다.

현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해외취업사업은 고용노동부, 해외인턴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해외봉사는 외교통상부가 실무적으로 총괄·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글로벌리더 양성 정부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글로벌리더 양성계획 추진관련 제도개선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²⁷⁾ 따라서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일차적인 총괄·관리 기능을 맡고 있는 조직으로서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실적을 과다하게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ODA 인턴사업은 KOICA 해외사무소 인턴과 ODA 수행기관 인턴으로 나뉘며 ODA 수행기관 인턴은 KOICA 사업의 위탁용역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턴을 말함. 위탁용역기관으로는 개발 NGO와 국내중소기업들이 있으며, 국내 및 해외사업 현장에 참여하게 됨.

26)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KOICA에 확인한 결과 국내외 혼합근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설명하고 있을뿐 국내외를 구분하여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27) 2008.9.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 개선방안.

이처럼 과다하게 집계된 성과실적은 정확한 성과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이나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한다. 또한 글로벌리더 양성 정부지원 협의회는 사업추진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기능을 맡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가 실무적 차원에서 실적을 집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협의하여 설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미흡하여 부처별로 실적 집계시 혼선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취업률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년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바, 국무총리실은 전년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진도 현황 및 실적,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등을 담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국회보고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²⁸⁾ 제12조의1 신설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은 현재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사업추진현황을 각 부처에서 예·결산 등을 통해 이미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국회 보고절차는

2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 가. 기업등
 - 나. 대학등
 - 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 ② 기업 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 뒤 2013년에 종결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동안 정부에서 해외일자리 창출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입하였던 예산이 매몰되는 등 각종 매몰비용이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는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법의 취지를 살려 동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각 7개 부처에서 예·결산을 통해 각각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연도별 양성인원 실적 등 양적성과와 질적성과를 한데 아우르는 통합적인 결과보고가 없는바, 향후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통사 등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다면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회 보고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 연도별 양성실적: 2009~2011년(단위: 명)

소관 부처	사업명	2009		2010		2011	
		총리실 집계 실적	실제 실적	총리실 집계 실적	실제 실적	총리실 집계 실적	실제 실적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연수	1,202	1,202	2,149	2,149	3,552	3,552
	해외취업알선	369	369	570	570	505	505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인력양성*	571	185	858	185	584	185
민간기관	민간알선취업(비예산)*	1,485	0	1,449	0	1,318	0
해 외 취 업 소 계		3,627	1,756	5,026	2,904	5,959	4,242
교육과학 기술부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300	300	329	329	373	373
	한미대학생 연수취업	340	340	377	377	378	378
	전문대학생 해외현장실습	912	912	653	653	589	589
	글로벌무역 전문가인턴*	300	151	300	157	153	153
	전시해외인턴	300	300	300	300	302	302
	플랜트해외인턴*	402	402	402	402	402	400
	해외농업인턴	19	19	28	28	29	29
	해외관광인턴*	—	—	105	105	105	95
	국제전문여성인턴*	30	27	24	24	29	29
	중소기업해외인턴*	—	—	—	—	192	186
	교사대출업자 해외진출*	—	—	—	—	28	28
	외식기업청년인턴*	—	—	—	—	195	144
	글로벌인턴십*	66	66	71	71	60	58
농촌진흥청	해외농업연구인턴	64	64	109	109	194	194
지식경제부	자원개발분야 해외인턴	—	—	—	—	113	113
국토해양부	항공인턴십*	—	—	28	28	32	31
산림청	산림분야 해외인턴	15	15	26	26	16	16
외교통상부	ODA 청년인턴*	—	—	—	—	365	147
	해외행정인턴	168	168	—	—	—	—
해 외 인 턴 소 계		2,916	2,764	2,752	2,609	3,555	3,265
외교통상부	KOICA 해외봉사단	1,000	1,000	1,000	1,000	981	981
	대학생 해외봉사단*	2,967	2,967	2,254	2,254	2,689	2,676
	대한민국 IT 봉사단	481	481	548	548	612	612
	개도국과학 기술지원단	18	18	20	20	21	21
해 외 봉 사 소 계		4,466	4,466	3,822	3,822	4,303	4,290
총 계		11,009	8,986	11,600	9,335	13,817	11,797

주: 국무총리실 집계실적과 실제실적 수치가 서로 다른 사업은 * 색으로 표시함.

자료: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12년 5월 1차 취합한 자료를 2012년 9월 2차 취합하여 수정함.

다. 해외인턴·해외봉사사업, 계획 대비 실적미달성으로 예산낭비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은 계획수립 다음해부터 바로 하향조정 되어 추진되었다. 이처럼 당초 계획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목표기준 대비 실적 달성률을 살펴본 결과, 해외인턴사업과 해외봉사사업²⁹⁾ 중 해외건설인력양성 사업, 해외농업인턴, 해외관광인턴 등 일부 사업은 평균 예산 집행률이 99.9%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건설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10명을 양성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실적은 555명에 불과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255명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농업분야인턴사업은 총 445명 양성 계획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367명으로 88명 부족하다. 이 때 계획 대비 실적미달성 사례는 물론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낭비 측면에서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왜냐하면 정부는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사업의 양성목표인원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예산편성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집행실적은 높는데 예산편성시 계획한 인원만큼 실제로 양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산집행률 9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비 실적미달성인 6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909명을 배출할 계획이었으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총 166억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정부는 이 중 166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처럼 예산집행률은 99.9%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획대비 총 462명 미달성 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상 그만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 당초계획한 1인당 양성비용과 실제 정부에서 투입한 1인당 양성비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³⁰⁾ 계획대비 실적미달성인 6개 사업의 1인당 양성비용은 평균 874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평균 1,153만원 소요되어 1인당 양성비용은 평균 279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해외봉사활동 사업

29) 과거 4개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해외봉사사업은 외교통상부의 WFK봉사단 파견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보고서에서 계획 대비 실적미달성한 사업으로 지적한 것은 WFK봉사단 파견사업 전체가 아니라 과거 분리되어 진행되었던 4개 사업 중 하나인 개도국과학 기술지원단 사업임.

30) 동 계산은 사업수행 환경과 여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단순비교를 위해 산정된 것으로 사업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과 인원 요소로 산정한 계산임을 밝혀둠.

의 하나인 개도국과학 기술지원단 사업의 경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1인당 양성비용이 2,310만원이었어야 하나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실제 1인당 양성비용은 4,307만원까지 115.7% 증가하였으며, 해외건설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1인당 양성비용이 770만원이었어야 하나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실제 1인당 양성비용은 1,100만원으로 42.9% 증가하였다. 따라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 달성정도에 따라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25]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계획 대비 실적미달성 사업: 2009~2011년
(단위: 명)

사업내역	2009		2010		2011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해외건설인력양성	300	185	300	185	210	185
해외농업인턴	50	19	30	28	30	29
해외관광인턴	—	—	100	100	100	95
농업분야 인턴	65	64	130	109	250	194
글로벌인턴쉽	84	66	70	71	80	58
개도국과학 기술지원단	30	18	60	20	20	21
합 계	529	353	690	513	690	582
	177명 미달성		177명 미달성		108명 미달성	

주: 실적미달성 사업은 계획대비 실적미달성 사업 중 예산집행률 90%이상인 사업으로 구성함.
자료: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표 26]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계획 대비 성과미달성 사업 예산집행률
(단위: 백만원, %)

사업내역	2009~2011 예산액	2009~2011 집행액	집행률
해외건설인력양성	6,200	6,200	100.0
해외농업인턴	704	704	100.0
해외관광인턴	1,350	1,350	100.0
농업분야 인턴	2,897	2,890	99.8
글로벌인턴쉽	3,000	3,000	100.0
개도국과학 기술지원단	2,541	2,541	100.0
합 계	16,692	16,685	99.9

자료: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표 27]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계획상 1인당 양성비용: 2009~2011년 합계

사업내역	2009~2011 예산액 (A)	정부 목표인원 (B)	당초계획상 1인당 양성비용 (A/B)
해외건설인력양성	62억원	810명	770만원
해외농업인턴	7억 400만원	110명	640만원
해외관광인턴	13억 5,000만원	200명	680만원
농업분야 인턴	28억 9,700만원	445명	650만원
글로벌인턴쉽	30억원	234명	1,280만원
개도국과학 기술지원단	25억 4,100만원	110명	2,310만원
합 계	166억 9,200만원	1,909명	1인당 평균 874만원 소요

주: 1인당 양성비용 산정대상은 실적미달성 사업에 한정함.

자료: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표 28]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실제 1인당 양성비용: 2009~2011년 합계

사업내역	2009~2011 집행액 (A)	실제 양성인원 (B)	실제 1인당 양성비용 (A/B)
해외건설인력양성	62억원	555명	1,100만원
해외농업인턴	7억 400만원	76명	926만원
해외관광인턴	13억 5,000만원	195명	692만원
농업분야 인턴	28억 9,000만원	367명	787만원
글로벌인턴쉽	30억원	195명	1,538만원
개도국과학 기술지원단	25억 4,100만원	59명	4,307만원
합 계	166억 8,500만원 (예산집행률 99.9%)	1,447명 (계획대비 실적 462명 미달성)	1인당 평균 1,153만원 소요 (당초계획대비 1인당 평균 279만원 증가)

주: 1인당 양성비용 산정대상은 실적미달성 사업에 한정함.

자료: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라. 취업취약계층 지원성과 미흡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정비하는 노력을 해왔으나 사업의 전달 경로 개선 등 근원적 해결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2010년 복잡한 해외인턴 분야사업을 한 차례 통폐합하고, 그간의 정비노력을 토대로 수요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해외인턴선발자 중 취업취약계층을 10% 이상 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³¹⁾ 취업취약계층 10% 참여유도 대상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한미연수취업, 전문대학생해외현장실습, 글로벌 무역전문가인턴, 해외농업연구인턴, 국제전문여성인력 사업 등이 있으며, 직접적인 대상사업 이외에도 취업취약계층 우선지원을 독려하였다.

그런데 실제 2011년 취업취약계층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도 부처별로 매우 상이하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취약계층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농업인턴, 국제전문여성인턴, 산림청의 산림분야 해외인턴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지원인원이 한 명도 없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전시해외인턴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지원비율은 전체지원 인원 중 1%, 외식기업 청년인턴은 2.1%, 대학생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3.5%를 차지하고 있어 취업취약계층 지원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수립하였던 취업취약계층 지원 계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가 적고 시간적·재정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오히려 더 많이 인턴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31) 관계부처 합동,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2010.7.

[표 29] 취업취약계층 지원성과가 미흡한 해외인턴사업

부처	사업명	취업취약계층 지원 내용	취업 취약계층 지원인원
교과부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 선발시 우대, - 추가 지원(자비부담금액의 100%, 75%)	13명(35%)
	글로벌무역인턴십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시 선발 우대 (소득층에게 서류전형 및 면접시 10% 가산점 부여) - 국내사전교육을 위한 과정 등록금 200만원 면제 - 파견할 국가/업체 배정시 연수생 의견 최대한 반영	5명(3.3%)
	전시해외인턴	선발시 우대, 지급기준 체제비 20% 가산 지급	3명(1%)
	해외농업인턴	일반참가자와 동일 지원	—
	해외관광인턴	항공료 추가 지원: 편도 항공료 지원	1명(1.0%)
	국제전문여성인턴	면접시 가산점 부여	—
	중소기업해외인턴	등급별 체제비의 20% 상향지원	19명(9.8%)
	외식기업청년인턴	선발시 우대, 체제비 차등 지원	4명(2.1%)
농진청	해외농업연구인턴	선발시 우대	1명
산림청	산림분야 해외인턴	선발시 우대	—
외통부	ODA 청년인턴	선발시 우대	2명

주: 2011년 기준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특히 KOICA 해외봉사단사업, 대한민국 IT 봉사단사업,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사업은 선발 시 취업취약계층 우대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대학생 해외봉사단사업³²⁾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태평양아시아협회에서 선발한 경우(2011년 총 파견인원 952명)에는 취업취약계층 참가비(항공료) 면제,³³⁾ 선발 시 취업취약계층 우대를 통해 2011년 54명의 취업취약계층이 선발되었으나, 각 대학에서 선발한 경우(2011년 총 파견인원 1,724명)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조건이 없어 선발된 취업취약계층은 없었다.³⁴⁾

32) 대학생 해외봉사단사업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각 대학(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지원), 태평양아시아협회에서 수행함.

33) 대학생 해외봉사단사업은 다른 해외봉사사업(전액 국비 지원)과 달리 항공료 일부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나, 취업취약계층은 자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함.

해외 일자리 사업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보다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동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취업취약계층 선발 시 우대, 자비부담 면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해외봉사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30] 해외봉사사업 취업취약계층 재정지원 현황: 2009~2011년

(단위: 명, %)

	2009			2010			2011		
	총 파견 인원 (A)	취업 취약 계층 인원 (B)	취업 취약 계층 비율 (B/A)	총 파견 인원 (A)	취업 취약 계층 인원 (B)	취업 취약 계층 비율 (B/A)	총 파견 인원 (A)	취업 취약 계층 인원 (B)	취업 취약 계층 비율 (B/A)
KOICA 해외봉사단	1,000	—	—	1,000	—	—	981	—	—
대한민국 IT 봉사단	481	—	—	548	—	—	612	—	—
대학생 해외봉사단	2,967	27	0.9	2,254	55	2.4	2,676	54	2.0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18	—	—	20	—	—	21	—	—
합 계	4,466	27	0.6	3,822	55	1.4	4,303	54	1.3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2. 6)

마. 사업 통합시행 미흡으로 성과관리 부실

정부는 부처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진행기관과 국민 사이에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2010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한 바 있으며, 이에 필요한 통합운영비를 예산으로

34) 이에 대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고령자(55세)’도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가능하며, 이러한 분류범주를 따르게 되면 KOICA 봉사단은 47명,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은 총 6명의 고령자가 파견되었으므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동 보고서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대한 보고서이므로 분석대상을 청년취업취약계층에 맞추고 있어 고령자에 관한 것은 논외로 함.

편성하였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예산만 통합되었을 뿐 사업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수행기관도 여전히 그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기관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취업 분야는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고용노동부로 통합하였으며, 해외인턴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해외인턴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되 부처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 사업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마지막으로 해외봉사 분야 역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외교통상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인턴분야의 경우 사업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2011년 6억 9,900만원, 2012년 8억 600만원의 통합운영비를 편성하였다.

[표 31] 해외인턴분야사업 통합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2011		2012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통합운영비	699	447	80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서.

[표 3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통합내역

	통합후		통합전
해외 취업	글로벌취업지원 (고용노동부)	← 통 합	해외취업연수(고용노동부)
	해외건설인력양성 (국토해양부)		해외취업알선(고용노동부) 해외건설인력양성(국토해양부)*
해외 인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 통 합	대학생 글로벌현장학습(교육과학기술부)
			한미대학생연수취업(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생 해외현장실습(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무역전문가인턴(지식경제부)*
			전시해외인턴(지식경제부)*
			플랜트해외인턴(지식경제부)*
			해외농업인턴(농림수산식품부)*
			해외관광인턴(문화체육관광부)*
			국제전문여성인력(여성가족부)*
			중소기업해외인턴(중소기업청)*
교사대졸업자해외진출(교육과학기술부)*			
외식기업청년인턴(농림수산식품부)*			
글로벌인턴쉽(교육과학기술부)			
해외 봉사	WFK 해외봉사단 (외교통상부)	← 통 합	KOICA 해외봉사단(외교통상부)
			대한민국 IT 봉사단(행정안전부)
			대학생 해외봉사단(교육과학기술부)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교육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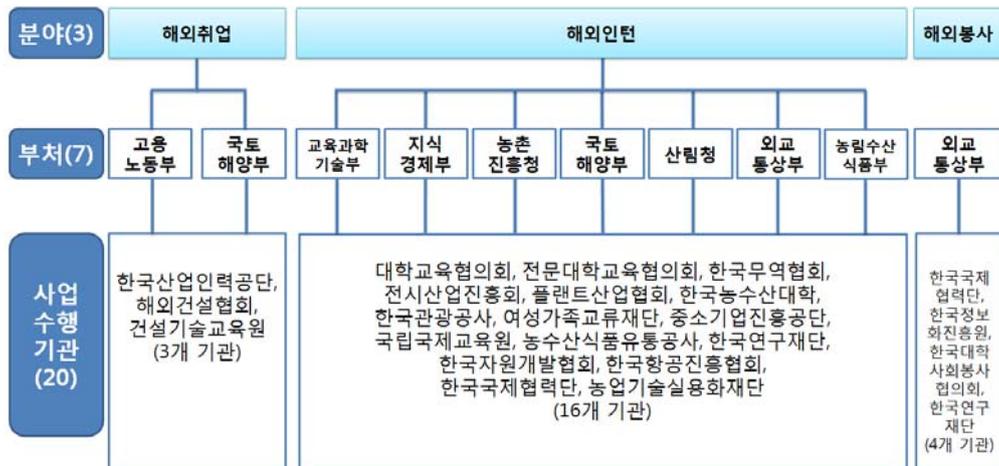
주: 2011년 통합된 사업은 * 표시함.

자료: 국무총리실 제출자료 및 각 부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그런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통합내용을 살펴보면 예산만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로 통합편성 되었을 뿐 사업내용과 수행방식 등은 과거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 후에도 통합 전 부처의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그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사업 내용도 통합 전과 동일하게 추진되는 등 통합 전에 비해 효율화된 사업구조를 찾아

보기 힘들며, 특히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이 통합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재 22개³⁵⁾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업 추진체계가 복잡하면, 사업성과를 관리하기 어려움은 물론 예산집행 효율성도 떨어지게 된다.

[그림 9] 2011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체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업통합시행이 미흡하고 및 추진체계가 복잡성하여 성과관리 부실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과거 해외봉사단 사업은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 교과부 등 개별부처에서 수행되었으나, 외교통상부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통합 시행 하고자 2009년 5월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WFK)”를 발족³⁶⁾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예산만 외교통상부로 통합된 상태이며, 사업내용과 수행방식 등은 과거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수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을 비롯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연구재단 등의 기관으로 분산되어져 있다. 따라서 해외봉사단 사업의 성과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연구재단 사업의

35)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은 해외인턴사업과 해외봉사사업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36)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개도국 현지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유용한 지식, 기술,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11년 예산은 800억 7,900만원이며, 2012년 예산은 891억 400만원임. 과거에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KOICA을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의 개별부처 예산으로 집행하였지만 2009년 5월 정부는 분산되어 있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통합시행 하고자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WFK)”를 발족한 바 있음.

성과를 모두 측정할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성과측정은 4개 기관 중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만 측정되고 있어 3개 기관의 성과측정은 누락된 채 사업 일부에 대해서만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는 「해외봉사단 협력기관 만족도」와 「해외봉사단원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봉사단원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하는 봉사단원 외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연구재단에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원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 해외봉사단원 만족도 조사대상은 KOICA 해외봉사단에만 한정되어 있어 IT 봉사단,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대학생 해외봉사단원의 만족도는 측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성과측정이 되고 있지 않은 3개 해외봉사단 사업의 2011년도 예산은 총 50억 3,700만원이다.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현재 시행기관별로 성과 측정을 하고 있으나 다만 이를 모두 한데 아우르는 통합적인 성과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성과측정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해외봉사단 사업은 WKF 해외봉사단으로 통합된 상태이므로 하나의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성과관리를 하게 된다면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제대로 된 성과관리라고 볼 수 없다.

KOICA 해외봉사단 사업은 ODA 사업 중 하나이다. 그리고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는 2010년 0.12%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OECD DAC 회원국 전체 평균 0.32%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³⁷⁾ 이에 정부는 2015년까지 0.25% 달성을 목표로 ODA 예산증액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요예산액이 약 4조 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봉사단 사업 예산 역시 향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통합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실제적인 통합운영 및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37)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0.7%를 달성하여 경제수준 대비 높은 ODA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3] 2011년 해외봉사단 사업 성과측정 현황

통합후		통합전	2011년도 예산	성과관리 시행유무
해외봉사단 (외교부)	← 통 합	KOICA 해외봉사단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수행)	692억 4,800만원	KOICA에서 성과측정
		대한민국 IT 봉사단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수행)	29억 6,300만원	KOICA에서 성과미측정
		대학생 해외봉사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수행)	13억 3,800만원	KOICA에서 성과미측정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수행)	14억 6,200만원	KOICA에서 성과미측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폐지된 유사사업의 문제점 개선 미흡³⁸⁾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은 대학생에게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양성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항공료, 비자 발급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예산액 1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은 2007년에 폐지된 (구)해외인턴사업(노동부 소관)과 사업목적, 대상 및 내용 등이 유사하여 폐지된 사업의 문제점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⁹⁾ (구)해외인턴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⁴⁰⁾ 결과 파견인턴 대상자 선정 등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이 지적

38)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III」을 토대로 작성.

39) 국회예산정책처, 「해외인턴사업 평가」(2009. 4)

40) 한국개발연구원(KDI), 「해외취업지원사업 심층평가」(2006. 2)

되어 2007년에 폐지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심층평가에서 파견인턴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직업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회사원, 교육직, 공무원, 전문직, 금융업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의 비중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들 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은 폐지되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의 경우 국가적 지원이 없더라도 필요에 따라 자부담으로 해외인턴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적 지원 없이는 해외인턴을 위해 항공료, 체재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며 국외에서 체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해외인턴사업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표 34]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과 (구)해외인턴사업의 비교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	(구)해외인턴사업
소관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수행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인원	2011년 373명	2006년 616명
1인당 지원금액	130~460만원 내외	최대 500만원
사업목적	대학생에게 다양한 글로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	청년에게 외국 현지기업체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해외취업 연결 및 국내 취업능력 제고
사업대상	4년제 대학 재학생	전문대졸 이상 미취업 청년실업자
신청요건	- 대학: 4년제 국내 국·공·사립대학, 20학점 내외로 학점 인정, 국가 지원금의 1/2이상 대응 투자 - 학생: 4학기 이상 수료, 평점 3.0/4.5(B ⁺)이상, 소정의 여학능력 보유자	29세 미만 미취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지방 거주자 또는 지방소재 대학에서 최종학력을 마친 자에게 우선순위)
인턴기간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6개월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2006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2007. 3) 및 교육과학기술부(2012. 9)

그러나 2011년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 대상자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전체 대상자(373명)의 3.5%인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을 시작한 2009년에는 전체 대상자 300명 중 저소득층은 한명도 없었으며, 2010년에는 전체 대상자 329명 중 5명(1.7%)만이 저소득층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은 (구)해외인턴사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구)해외인턴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중심의 대상자 선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어려울 경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10만 명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예산은 4,868억 3,900만원인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전반에 대해 평가한 결과 양적성과에 치중하여 실적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문제를 사업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관리 단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계획단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은 추진 당해 연도부터 하향 조정되어 추진되었다. 물론 해외여건 및 추진상황 등이 반영되어 사업추진계획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2008년 국무총리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정부지원협의회의 연차별 목표인원 계획을 살펴보면 해외 수요 등 구체적인 목표인원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현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연구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당초 양성 계획인원은 104,957명이었으나 64,841명으로 40,116명(38.2%) 감소되었다.

다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집행단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초과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해외취업사업인 해외취업연수사업과 해외취업알선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위탁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2010년 137억 9,300만원, 2011년 29억 2,000만원, 총 167억 1,3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은 부족재원 167억 1,300만원 중 26억 7,400만원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13억 5,100만원은 자체사업예산 절감분에서 충당, 고용노동부에서는 45억 5,500만원은 사회적기업보조금에서 전용하여 충당하도록 추가 출연 조치하였다. 그러나 퇴직급여충당적립금은 민간자금으로서 국가예산으로 수행되어야 할 국가사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민간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부족분은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하였어야 한다. 또한 민간자금이 국가재정으로 충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자금을 국고로 납입하고 이후 배정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처리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에서 해외취업 실적인원이라고 산정한 인원의 직종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직종에 비해 사무/서비스업의 비중이 매년 높게 나타난다.

사무/서비스업 해외취업자의 세부직종을 살펴보면, 호텔 및 숙박시설 서비스 등 종사자, 단순 사무종사자(사무원),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판매(영업)관련 종사자, 이·미용 및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음료서비스종사원(커피숍) 등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단순 노무직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해외취업 실적이 한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단순 노무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적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취업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외취업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연수과정 단계에서 중도 포기하는 인원이 매년 약 1,000명가량 발생하고 있어 해외연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연수대상 모집선발비 등 각종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연수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생들의 중도 하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연수대상 및 연수기관 모집선발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제한 등 일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인원을 대상으로 출입국조회자료에 의한 간접 확인결과에 따르면 해외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인 인원이 전체 조사인원의 약 40.7%를 차지하여 상당수가 단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연수기간이 평균 6개월임을 감안할 때 실제 해외취업 기간은 줄어든다. 비자 등 사업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취업을 단기간 동안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면 동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의 해외취업은 경력관리에도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연수기간에 비례한 취업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직종을 개발하여 1년 이상의 장기 연수기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 문제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각 부처의 해외인턴사업의 국내 교육기간을 살펴보면 매우 단시간에 이루어져 있어 사업의 사전관리가 미흡한 하며, 해외인턴사업과 해외봉사단 사업은 귀국자에 대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사업이 있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성과관리단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취업 양성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수정부표 기준 목표 총 8,478명에 실적 8,875명으로 총 397명 초과달성하였다. 이처럼 해외취업사업은 계획대비 실적을 초과달성 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평가할만하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사업초기단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서 의결된 확정 금액보다 예산을 초과하여 투입한 결과이며, 비록 취업인원 수가 많다하더라도 취업상태가 단기간 유지되는 등 해외취업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둘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총리실에서 집계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실적은 총 36,426명지만 실제 실적인원은 30,118명으로 6,308명의 실적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산정된 이유는 비예산으로 수행된 민간기관의 실적까지 정부실적으로 포함하고, 해외취업이 아닌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기업 취업인원을 해외취업으로 허위산정 하였으며, 단순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현장실습 인턴인원실적으로 산정하고, 해외출국하지 않은 인원을 해외인턴 실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당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은 계획수립 다음해부터 바로 하향조정되었다. 이처럼 당초 계획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목표기준 대비 실적 달성률을 살펴본 결과 해외건설인력양성 사업, 국제전문여성인턴 사업, 해외농업인턴사업, 중소기업해외인턴사업, 외식기업청년인턴사업 등 일부 사업은 계획 대

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는 해외인턴선발자 중 취업취약계층을 10% 이상 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실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도 부처별로 매우 상이하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이 전무한 것도 있으며, 대체적으로 지원성고가 저조하여, 정부지원의 필요가 적고 시간적·재정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오히려 더 많이 인턴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부는 부처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체계가 복잡하다고 판단하여 2010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 한 바 있으며, 통폐합에 필요한 통합운영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통합되었을 뿐 사업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수행기관도 여전히 그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과거 부적합 평가를 받아 폐지되었던 사업에 대해 사업목적,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여 폐지된 유사사업의 문제점 개선이 미흡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국무총리실은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글로벌 일자리 사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실적 등 각종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연수생들의 중도 하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연수대상 및 연수기관 모집선발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제한 등 일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 직종 중 단순 노무직의 경우 국가적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해외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다.

다섯째, 정부는 양질의 해외취업 직종을 개발하여 1년 이상의 장기 연수기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 문제 등 제반여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보다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해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부는 사업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하고, 귀국 후에도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취업률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년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데, 국무총리실은 전년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진도 현황 및 실적,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등을 담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국회보고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¹⁾ 제12조 5항의 신설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은 현재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사업추진현황을 각 부처에서 예·결산 등을 통해 이미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국회 보고절차는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가. 기업등
나. 대학등
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② 기업 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고용 및 취업 이슈는 한시적으로 추진하여 어느 시점에 종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향후에도 지속가능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무총리실의 설명대로 현재 각 7개 부처에서 예·결산을 통해 각각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연도별 양성인원 실적 등 양적성과와 질적성과를 한데 아우르는 통합적인 결과보고가 없는바, 향후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통사 등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다면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회 보고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12.
- 교육과학기술부, 「2012회계연도 성과계획서」, 2012.
-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개선방안, 2008.9.
- _____,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2010.7.
- 국무총리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보완·발전방안 마련」, 2012.8.
- 국회예산정책처, 「공적개발원조 사업평가」, 2010.
- _____,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4.
- _____, 「해외인턴사업 평가」, 2009.4.
- _____,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III」, 2012.
- 외교통상부,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12.
- 한국개발연구원(KDI), 「해외취업지원사업 심층평가」, 2006.2.

사업평가 현안분석 목록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	국내 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평가 및 경쟁전략 수립	구상욱	2004.11
2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사업평가와 개선방안	최미희	2005. 2
3	성과지표측정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사업평가	신동진	2005. 4
4	과학기술부문 경쟁력 평가: 한·중·일 지식기반 기술경쟁력 평가를 중심으로	권용수·박추환	2005. 4
5	두뇌한국21 사업의 평가 및 시사점	이용준·이선주· 김혜영	2005. 4
6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항만개발의 발전방안	남광현	2005. 5
7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재철	2005. 5
8	IT839 전략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박추환	2005. 5
9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배종학	2005. 8
10	간접투자자산운용 정책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구상욱	2005. 8
11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은행구조조정의 성과평가	신동진	2005. 8
12	교통시설 SOC 재정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필요성 고찰	안태훈	2006. 5
13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재원조달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이은경	2006. 6
14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별 환경성·경제성 분석	최미희·서세욱	2006. 6
15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박추환	2006. 7
16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김병진	2006. 9
17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개선방안	최미희	2007. 9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8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방법	이인섭·금재덕	2007.12
19	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태훈	2008. 9
20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최미희·이은경· 김현중·서세욱	2008.10
21	공기업 서비스의 교차보조현황 및 문제점	허가형·안태훈· 이은경·이화실	2008.10
22	공기업 택지개발이익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한국토지공사를 중심으로	안태훈	2008.10
23	환변동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은경	2009.10
24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과 정책과제	박홍엽	2009.12
25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및 과제	제민·허가형	2010. 4
26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최미희·임도진	2010. 4
27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여차민	2010. 9
28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현황 및 쟁점	제민	2010.10
29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 —국유지를 중심으로	남은정	2010.10
30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제민	2011. 8
31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부산·인천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정유훈·안태훈	2011. 9
32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이채정	2011. 9
33	방위력 개선사업 재정운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천우정·여차민	2011.10
34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이세진	2011.12
35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안태훈	2012. 5

	제 목	집필진	발간일
36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은경	2012. 6
37	복권기금 운용과 복권사업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세진·고준혁	2012. 6
38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 분석	하현선	2012. 8
39	하천재난 관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김수진	2012. 8
40	재정용자사업 성과지표 분석과 개선과제	김태규	2012. 8
41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박홍엽	2012. 8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42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

발간일 2012년 9월 27일
발행인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성지문화사 (tel 02·2273·5090)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4750)
-

ISBN 978-89-6073-583-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2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nabO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384-001072-01